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11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육사 충남 이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육사 이전 당위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구재철

베이벨리 메가시티 건설 속도

충남·경기 실무협의회 회의

천안·아산·평택 순환철도 등

9개 사업 추진계획 등 논의

충남도과 경기도가 베이벨리 메가시티 건설 업무협약 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꾸리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충남도과 경기도는 11월 23일 충남도청 소회의실에서 '충남·경기 상생협력 추진 실무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실무협의회는 지난 9월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양 도 총괄부서장과 담당 과장, 연구원 소속 전문가 각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했다.

실무협의회 주요 기능은 업무협약 9개 사업에 대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추진을 위한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과 국가계획 반영 협력 등이다.

회의는 격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 시 수시로 열기로 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9개 사업에 대한 추진 방안 발표와 종합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9개 사업은 ▲천안·아산·평택 순환철도 건설 ▲충남·경기 연접지역 최첨단 산업벨트 조성 ▲평택·당진항 물류 환경개선과 대중국 수출 전진기지 육성 ▲충남·경기 해안지역 국제적 관광지(K-골드코스트) 조성 ▲수소에너지 융복합산업벨트 조성 ▲미군기지 주변 지역 지원 확대 ▲서해안권 마리아 거점 공동 육성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공동 대응 ▲충남·경기 현안 사항 및 중장기 발전 방향 공동연구 등이다.

베이벨리 메가시티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산학연을 연계하며, 기업 창업과 인재 육성, 정주와 문화 환경 등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 같은 생태계가 선순환하는 구조의 정책을 추진해 초광역 경제권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천안·아산·당진·서산 등 충남 북부권과 평택·안성·화성·오산 등 경기 남부권을 아우르는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소경제 등 대한민국 4차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경제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대규모 계획이다.

/정책기획관 041-635-3146

“국방장관 육사 이전 공개토론헬시다”

김태흠 지사, 국회 기자회견서 요구
3군본부, 군 교육 시설 충남 집중
국방수도로써 최고의 교육환경 제공

“국방부 이전 연구용역비 미반영
대통령 공약 문제삼는 것 부적절”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육군사관학교(육사) 이전과 관련한 공개토론헬를 요구하고 나섰다.

육사 이전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정책토론헬가 파행을 빚는 가운데 육사 이전 반대 여론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김 지사는 11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육사 이전은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이전 과정 속에서 논의는 있을 수 있지만, 이전 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국방부 장관에게 공개토론헬을 요구했다

육사 부지가 국군의 성지로 안 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강제수령 동상, 육사기념탑, 육군박물관 등을 개방해 국민의 성지로 만드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 때문에 안된다, 지역이기주의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관생도들이 노후화된 시설과 아파트에 둘러싸여 사격훈련도 제대로 못 하는 것이 진짜 안보위기”라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남겠다고 하는 것은 지역이기주의이자 국방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집단이기주의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충남은 국방 인프라와 교육·훈련환경을 갖추

고 있어 육사 이전 최적지로 꼽힌다.

이전 당위성으로는 국가균형발전, 연계성, 국방연구교육 클러스터, 조국수호의 거점, 행정수도 인접 등이 있다.

논산은 육군훈련소와 국방대가 있고 국방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으며, 계룡에는 3군 본부가 있다. 인근에는 국방과학연구소와 항공우주연구원 등 국방 관련 30여 개 기관이 위치해 있다.

아울러 국토 중앙부 위치, 호남선 KTX와 고속도로 등 지역으로의 접근성도 좋다.

김 지사는 “육사 논산 이전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예산에 반영됐지만, 국방부가 관련 예산을 집행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민의 혈세를 무위로 만든 군 지휘부 일부의 오만한 행태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종섭 장관에게 공개토론헬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육사충남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추진위)도 육사 이전을 반대하는 육사 총동창회의 입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추진위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국가와 국방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집단엘리트주의에 빠진 육사 총동창회의 편협하고 그릇된 사고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육사 총동창회의 육사는 수도 서울에서 유일한 화랑 양성의 도장이라는 주장에 대해 “화랑의 호국정신과 역사적 상징성은 충남 논산 황산벌도 뚜렷하다”면서 “서울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했다.

육사 수도권 위치와 관련해서는 미국 등 타 국가 사례를 들며 반박했다.

추진위는 “미국은 수도권이 아닌 뉴욕 외곽에 육사가 있고, 프랑스, 영국 등은 수도권과 멀리 떨어진 소도시에 위치해 있다”며 “우리나라와 같이 수도 서울 한복판에 입지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진위는 “육사 충남 이전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만 요구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며 “육사 총동창회도 육사의 중장기 비전 실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결단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정원 jwkim87@korea.kr
/균형발전과 041-635-3661

육사 충남 이전 당위성

- 연계성 - 논산 인근 국방 관련 30여개 기관 입지로 시너지 극대화
 - 3군 본부, 국방대, 국방과학연구소, 육군훈련소, 교육사령부 등
- 접근성 - 편리한 광역교통망
 - 호남,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KTX
- 상징성 - 불굴의 호국정신과 임전무퇴 정신이 깃든 황산벌 소재지
 -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관창의 충의·화랑 정신 등 용맹성을 지닌 지역
- 자연환경 - 수려한 경관과 풍부한 녹지자원으로 정예장교 양성최적
 - 계룡산 국립공원과 인접, 금강 및 탐정호 등의 풍부한 수변자원 확보
- 성공적인 이전경험 - 국방대학교 유치·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육군사관학교 현황

- 위치 :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1-1번지 일원
- 규모 : 부지 1,496,979㎡(약45만평), 건물 110개동
- 개교일 : 1946년 5월 1일 (제1기생 88명 입교, '21년 77기 268명 졸업)
- 인원 : 2500여명 (생도 1300명, 교수 등 1200여명)

힘센충남 보훈카드 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마트, 대중교통 이용시 할인

12월 발급 목표, 농협서 신청

충남도는 도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 및 예우 강화를 위한 ‘힘센충남 보훈카드’를 출시한다.

최근 도는 NH농협은행 충남본부와 카드 출시를 위한 협약을 체결, 12월 20일 보훈카드 발급을 목표로 한다.

보훈카드는 지난 7월 도내 보훈단체장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 중 하나로, NH농협은행, 농·축협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훈카드는 도내 하나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이용 시 5% 할인혜택이 제공된다.

도내 226개 하나마트 이용 시에는 5% 현장 할인 혜택이 추가로 제공돼 총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또 주유, 온라인쇼핑, 카페, 편의점, 배달앱, 영화, 대중교통, 놀이공원 등 이용 시에도 혜택이 적용된다.

/사회복지과 041-635-4253

2024년까지 파크골프장 30개 늘린다...노인 체육활성화 나서

18홀 규모 파크골프장 신증설 올해 9곳→내년 12곳→24년 9곳 노인 건강증진·의료비용 절감 기대

충남도가 노년층에게 인기가 높은 파크골프장을 2년 내 100% 늘리기로 했다. 도는 오는 2024년까지 300억 원을 투입해 18홀 규모 파크골프장 30개를 도내 각 시군에 신증설한다고 밝혔다. 파크골프는 일반 골프장(60만~100만㎡)에 비해 훨씬 적은 2만㎡ 안팎(18홀 기준)의 경기장에서 골프채와 비슷한 나무 채(86cm·600g) 하나만으로 6cm 크기의 플라스틱 재질의 공(일반골프공 4.2cm)을 쳐 홀에 넣는 방식의 경기다.

보통 4인 1조로 게임을 진행하며, 최종 코스까지 타수가 가장 적은 선수가 경기를 이기게 된다. 이번 신증설 추진은 우선 노년층을 중심으로 파크골프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 파크골프 생활체육동호회는 144개이며, 등록 동호인은 2020년 2890명에서 지난해 4375명, 올해 5843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도내 파크골프장은 28개소가 운영 중이고, 2개소는 조성 중이다. 전국 319개 파크골프장의 9.4%이자, 경북(43개소), 경남(42), 경기(41)에 이어 네 번째로 많다. 2024년까지 30개소 540홀을 추가 조성하면, 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파

크골프장을 보유하게 될 전망이다. 파크골프장 30개소는 연내 9개소, 내년 12개소, 2024년 9개소 등으로 순차 조성한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최근 보령·당진·금산·서천·청양·홍성·태안 등 7개 시군 18홀 5개소, 36홀 2개소를 선정했다. 도는 파크골프장 조성을 통한 노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건강증진, 의료비용 감소 등 효과를 기대한다. 김태흠 지사는 “파크골프는 오락적인 요소까지 있어 노년층을 운동으로 끌어들이는 효과가 크다”며 “전국 또는 충남 대회 개최 가능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시군마다 1개소 씩,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 여건을 적극 검토해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체육진흥과 041-635-3866



예산 무한천 둔치 파크골프장에서 동호인들이 경기를 하고 있다.



해양쓰레기 운반 '늘푸른충남호' 진수

충남도의 첫 환경정화운반선인 '늘푸른충남호'가 마침내 바다에 선체를 띄웠다. 도는 11월 23일 서천 장항항 부두에서 '늘푸른충남호' 진수식을 개최했다. 늘푸른충남호 주요 임무는 해양쓰레기 육상 운반과 해양환경 보존, 해양오염사고 방제작업 지원, 해난사고 예방 및 구조 등이다. 선박은 131톤 규모로, 전장 32m, 폭 7m, 깊이 2.3m이며, 최대 13노트(24km/h)의 속도로 운항할 수 있다. 늘푸른충남호는 시운전 등을 거쳐 12월 준공되며, 도는 12월 중순 선박 인도와 함께 현장에 본격 투입할 계획이다. /해양정책과 041-635-4778

“사형은 각오하여 하등의 할 말이 없다”

대한의 청년, 윤봉길 윤봉길의사 상하이 의거 90주년 16) 가나자와에서 순국하다



윤봉길은 제9사단 위수구급소에 도착하여 다음 날 아침까지 잠을 자지 못했다. 간수의 말에 의하면,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그도 그 날 밤은 한 숨도 자지 못했다 한다. 윤봉길은 다음 날인 12월 19일 아침 6시 30분 위수구급소를 나왔다. 사형장인 미쓰고지(三小)산 육군작업장에 오전 7시 15분 도착하였다.

다. 윤봉길의 유해는 신문에 의하면, 화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보도된 것과는 달리 화장하지 않았다. 일본 육군 형법에 따라 육군묘지에 묻히지도 않았다. 육군묘지 아래에 일반인이 왕래하는 통로에 암장(暗葬)한 것이다. 일본 육군성의 보고 기록인 『만밀대일기』에서 “오주의자 특히 선인(鮮人) 좌경분자 또는 불령분자의 책동에 관해 헌병과 경찰의 밀접한 연계를 유지하여 엄중 경계 중임”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흑시 모르는 도구를 감시하기 위해서 통로에 매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윤봉길의 유해는 그로부터 13년 후 발굴되기까지 지나는 사람들에 의해 밝히고 밝혔다.

이때 윤봉길은 ‘취색의 중절모’에 ‘양복’을 착용하였다. 검찰관은 간수장에게 윤봉길의 수갑을 풀게 하였다. 이어서 윤봉길에게 사형을 집행한다는 뜻을 말하고 유언이 있느냐고 물었다.

윤봉길은 “사형은 이미 각오하여 이에 임하여 하등의 할 말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때 그는 조금은 쓴 웃음을 지었다 한다. 그러면서 극히 대담하고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다. 감옥장이 소지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묻자 ‘필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마침내 간수는 윤봉길의 눈을 가렸다. 그리고 형틀 앞의 거적 위에 무릎을 꿇었다. 이어 양손의 손목과 팔을 십자 형태의 형틀에 묶었다.

윤봉길을 가나자와로 끌고 가서 사형을 시킨 것은 보복적인 측면이 강하다. 일제는 상해파견군 사령관 시라카와가 죽은 시간에 맞춰 윤의사의 사형을 집행하였다.

검찰관이 사격을 명령한 시각이 7시 27분이었다. 사수 2명이 검찰관의 신호에 따라 형틀로부터 10미터 떨어진 곳에서 앞드린 자세로 사격하였다. 정사수가 쓴 한발이 윤봉길의 두 눈썹 사이의 가운데를 명중시켰다. 의관이 총상을 조사하고 목숨이 끊어졌음을 확인하고 검찰관에게 보고하였다. 이때 시각이 7시 40분이었

또한 가나자와에는 상해사변의 주력 부대인 제9사단의 사령부가 있는데, 윤봉길의거로 제9사단장 우에다 겐키치가 중상을 입은바 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윤의사를 가나자와까지 끌고 와 사형시킨 것으로 보인다.



김 상 기 충남대 국사학과 명예교수

발달장애인 복지에 5년간 9263억

생애주기·돌봄 등 5개 분야 2027년까지 30개 과제 수행

충남도가 생애주기와 돌봄 등 발달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30개 과제에 5년간 총 9263억 원을 투입한다. 도는 11월 22일 제2차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발표된 제2차 5개년(2023-2027년) 계획에는 ▲생애주기와 돌봄 6개 ▲건강·교육과 주거 6개 ▲인권과 권의 옹호 5개 ▲자립 7개 ▲가족 6개 등 30개 과제에 9263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생애주기와 돌봄 분야는 발달장애인 돌봄과 성장지원이 목적이다. 지원 과제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성인전환기 발달자녀 진로상담, 방과후 돌봄, 주간활동지원 등 6개 과제이다. 발달장애인의 건강과 교육 및 주거 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건강·교육과 주거 분야 주요 사업은 충남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장비 구축 등이다. 도는 올해 안에 5개년 계획에 대한 확정안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장애인복지과 041-635-2632

절임배추 30% 싸게 구매하세요

30일까지 따숨물서 할인가획전

충남사회적경제기업 소풍물인 따숨물(<http://www.ddasummall.co.kr>)에서 11월 30일까지 절임배추 할인가획전을 연다. 김장철을 앞두고 마련한 이번 기획전에는 도내 마을기업 2곳이 참여해 절임배추 20kg 상품을 시중가격(5만

원)보다 30% 할인된 3만 5000원에 판매한다. 주문은 배달 5일 전부터, 배송은 12월 15일까지 예약 가능하고 배송비는 무료다. 도 관계자는 “이번 기획전은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소비자는 믿을 수 있는 김장배추를 알뜰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기획



전이 맛있고 건강한 김장을 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적경제과 041-635-3974

풍수해보험 가입하세요 보험료 최소 70% 지원

충남도가 도내 농가를 대상으로 겨울철 자연 재난으로 각종 시설물 피해

발생 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했다. 풍수해보험은 정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 일부(최소 70%)를 국가 및 지자체가 보조함으로써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도민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 재난관리 부서, 풍수해보험 판매 6개 민간보험사에 문의하면 된다. /자연재난과 041-635-3256



남연군묘. 1989년 충청남도 기념물로 지정돼 있다. 남연군은 홍선대원군의 아버지로 원래 경기도 연천에 있던 것은 1846년 이곳으로 이장하였다. 홍선대원군은 풍수지리설을 믿고 지관(地官) 정만인에게 부탁하여 이곳으로 옮기게 되었다. 이 위치에는 본래 가야사(伽倻寺)라는 절이 있었다. 묘지리는 탐이 서 있었지만 대원군에 의해 폐사되고 무덤이 옮겨지게 되었다. 사진/예산군

“서양인은 부모의 묘도 파헤치는 무모한 무리인가”

충남도는 1896년 13도제 채택으로 충청도가 충남과 충북으로 분리되면서 개도(開道)했고,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37개 군이 14개 군으로 통합됐다. 1932년에는 공주에 있던 도청 소재지가 대전으로 이전하는 변화를 겪었다. 이어 1989년 대전시의 직할시 승격,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의 분리 독립 등 행정환경의 급변에 따라 다시 도청 소재지를 내포신도시로 옮기면서 ‘내포시대’를 열었다. 충남도는 국토의 중앙이자 3남의 분기점에 자리한 지정학적 입지 등으로 인해 격동기 굴곡진 근현대사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었다.

충남도정신문은 올해 충남도청 내포신도시 이전 10주년을 맞아 근현대사의 굵직한 사건을 재조명하는 ‘격동의 충남 100년’ 코너를 신설, 충남 역사와 변천사를 소개함으로써 도민들의 애항심 고취와 자긍심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격동의 충남 100년

1) 오페르트 일당의 남연군묘 도굴사건

구한말, 구미열강은 힘없는 조선 왕조에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고 그들은 철도 부설이나 광산채굴 등 돈벌이에 군침을 삼켰다. 독일인 오페르트 역시 그런 야심으로 1866년 3월과 8월 두 번이나 조선에 건너와 통상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창 쇄국정책을 밀어붙이던 대원군은 그의 요구를 단숨에 거절해 버렸다. 하지만 오페르트는 단념하지 않고 영똥한 방법으로 통상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했다. 그는 충남 예산군 덕산면 가야산에 있는 대원군 아버지 남연군의 묘를 도굴하여 시신과 부장품을 무기로 대원군과 담판을 벌이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그는 대원군이 자기 아버지 묘를 이곳에 옮겼으므로 아들이 왕위에 올랐고 자신도 대원군으로서 권력을 잡게



남연상여 /문화재청

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이 묘를 건드리는데 것이 대원군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최상의 카드라 오만했던 것. 그래서 오페르트는 일본으로 건너가 남연군묘를 도굴할 도굴단 모집에 나섰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금이었는 데 마침 미국인 젠킨스라는 사람이 자금책으로 포섭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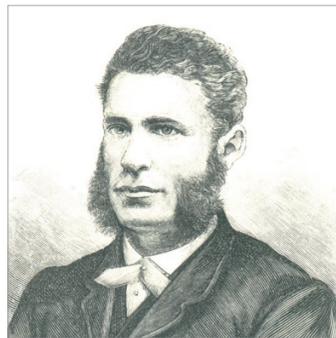
그리고 대원군의 천주교 탄압에 불만을 품고 있던 프랑스 신부 페롱과 중국, 필리핀과 유럽 등에서 온 인부 등 140명이나 되는 도굴단이 구성되었다. 조선인 천주교 신자들도 일부 포섭되었다. 그야말로 국제적 도굴단의 성격을 갖게 된 것이다. 이들은 타고 갈 기선도 마련되었다. 1천톤급 차이나호, 그리고 같은 급수의 그레타호, 이에 필요한 자금 역시 미국인 젠킨스가 제공한 것이다.

마침내 이들 도굴단은 1868년 5월 10일 저녁 덕산의 구만포에 도착, 닛을 내렸다. 그리고 군대가 행진하듯 일사불란하게 남연군 묘로 향했다. 가는 도중에 덕산군청에 쳐들어가 기물을 무단 탈취하는가 하면 민가에 들러 곡괭이 같은 도굴 장비를 빼앗기도 했다. 그리고 이들은 손쉽게 남연군묘를 발견하고는 모두 달려들어 파헤치기 시작했다.

처음 묘의 봉분은 쉽게 파헤칠 수 있었다. 그러나 밑으로 내려가 묘광에 이르자 의외의 벽에 부딪혔다. 석회를 섞어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묘광을 에워싸고 있어 곡괭이로 아무리 찍어도 꿈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원군



홍선대원군



오페르트 초상화

오페르트는 상하이에서 프랑스 출신 천주교 신부 스타니스라스 페롱과 함께 충청도 홍주목 행담도에서 정박하다가 구만포에 상륙하여 덕산 가동에 있는 남연군의 묘를 파헤치다가 썰물때가 임박하여 관곽까지 파낸 것을 그대로 두고 구만포로 되돌아갔다. 이후 그는 영사관으로 소환명하여 조사를 받고 영사재판에서 고인모독죄 회부되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방면 되었다. 하지만 오페르트가 수군제독을 사칭한 사실이 밝혀져 본국으로 소환되어 사형을 언도받았다. 자료조사/이상현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남역사박물관 선임연구원

오페르트 ‘통상교섭요구’ vs 대원군 ‘거절’ 대원군 아버지 남연군 묘 도굴하려다 실패 쇄국정책 명분 강화 천주교 박해 가속화

은 묘를 조성할 때 만약의 경우 도굴을 당할 것에 대비하여 몇 겹 석회를 이겨 묘광을 조성했던 것.

이처럼 도굴단이 땀을 흘리며 씨름을 하는 동안 벌써 동이 틀 시간이 되었다. 이것은 또한 바다의 썰물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바닷물이 빠지면 다시 물이 들어올 때까지는 배를 띄울 수가 없는 것. 그래서 이들은 도굴작업을 포기하고 산을 내려와 구만포로 향했다. 만약 날이 밝아 관헌이 출동하면 큰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서둘러 배를 타고 떠났다.

대원군은 그의 아버지 남연군 묘가 오페르트 일당에 의해 도굴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크게 진노했다. ‘서양 사람은 부모의 묘도 파헤치는 무모한 무리가 아닌가’ 대원군은 그렇게 소리쳤다. 조상숭배, 특히 묘지에 대한 존경심이 강했던 조선 사회에 남연군묘 도굴사건은 전국적으로 충격을 주었고 쇄국정책의 명분을 더욱 강화시켜 주었다. 아울러 천주교 박해에 더욱 박

차를 가하게 했다.

그만큼 남연군묘 도굴사건은 대원군에게는 끔찍한 충격이었다. 사실 그는 아버지의 묘를 신앙처럼 마음에 모시고 살았다. 대원군은 처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는 경기도 연천에 모셨는데 충남 예산군(당시는 덕산군) 가야산에 2대에 걸쳐 왕이 나오는 자리가 있다는 지관의 말을 듣고 이장을 결심했다.

마침 그 자리는 가야사라는 절이 자리를 잡고 있어 그의 계획이 벽에 부딪힐 뻔 했으나, 여기서 포기할 대원군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을 따르던 가신들을 데리고 현지에 내려갔다. 그리고 야간을 이용하여 절에 불을 질렀다. 잠결에 놀라 일어난 스님들이 불을 끄려고 했으나 가신들은 스님들을 위협하여 멀리 쫓아 버렸다. 스님들은 명색이 왕족이어서 꿈쩍 못하고 쫓겨난 스님들을 위해 별도의 절을 지어 주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렇게 하여 1846년 대원군은 아버지 남연군의 묘를 경기도 연천에서 덕산 가야산의 불태운 절터로 이장하는 작업을 벌인다. 연천에서 덕산까지 196킬로미터 약 500리길, 시신을 운구하는데도 30일이나 걸렸다. 자동차도 없고 도로 사정도 좋지 않은 때라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다 상여가 마을을 지나려면 마을 사람들이 상여를 가로막는 일도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럴 때는 산을 넘어야 하는 등 많은 고통을 겪기도 했다.

이렇게 고난을 겪으며 30일이나 걸려 운구해온 상여는 마지막 도착지 덕산면 광천리 마을에 이르러서는 마을 사람들에게 기증했는데 지금 국가민속문화재 31호로 지정된 ‘남연상여’가 그것이다.

이렇게 하여 이장을 하고 7년 후 대원군은 아들을 낳게 되었고 아들이 1863년 마침내 왕위에 오르니 이가 곧 고종이다. 그리고 1895년 그의 손자가 왕위에 오르니 조선 마지막 임금 순종이다. 그러니까 가야산 절터에 아버지 산소를 모시면 2대에 걸쳐 임금이 탄생하리라는 예언은 맞은 셈이다.

이런 우여곡절을 간직한 남연군묘를 서양 사람이 주동이 되어 파헤쳤다는 것은 대원군으로 하여금 서양인들에 대한 증오심을 불태웠고 그것이 또한 그의 쇄국정책에 뿌리를 박게 했을 것이다.

결국 오페르트는 남연군 도굴사건으로 그가 살고있는 독일에서도 문제가 되어 사법 당국에 의해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았다. 그리고 마침내 독일 대법원은 3개월 복역과 함께 그동안 수사와 재판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그의 행위가 반인륜적이었다는 것이다. 자금을 지원한 미국인 젠킨스, 그리고 프랑스 신부 페롱 역시 자국에 소환되거나 고발당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변 평 섭 전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



국립경찰병원 분원 아산 유치 총력

경찰청장에 서한문 발송

아산 경찰타운 분원 설립 최적지 현장실사, 브리핑 평가 대응 만전

충남도가 국립경찰병원 분원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최근 아산 경찰타운이 경찰청 부지평가위원회 1차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른 현장 실사 평가를 앞두고 대응에 총력을 다한다.

김태홍 충남도지사는 11월 21일 열린 제21차 실국원장회의에서 “지난 18일 아산시장과 함께 경찰청장에게 서한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서한문에는 ▲대통령 공약 공모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약속대로 이행 희망 ▲14만 경찰과 국민을 위해 ‘충남 아산’이 설립의 최적지 ▲초사동 경찰타운 일대 인프라 획기적 확충 등의 내용이 중점 담겼다. 김 지사는 “관련 부서에서는 현장실사, 브리핑 등 평가 대응 및 충남경찰청, 경찰타운 내 기관과의 스킵십 강화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현재 도는 아산 경찰타운이 1차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예정된 2차 평

가에 대비해 총력을 기울인다.

국회 및 정부 추가 건의, 경찰 관련 기관 업무협약, 범도민 서명, 도의회 대정부 건의안, 현장 실사 사전점검, 대응 논리 추가 발굴, 언론 홍보 등을 추진한다.

앞서 지난 11일 경찰청의 국립경찰병원 분원 부지평가위원회 1차 평가에서 아산시 초사동 경찰타운은 경남 창원, 대구 달성과 함께 후보지로 선정됐다.

도는 아산 경찰타운이 ▲부지 활용 가능성 ▲병원 건립 용이성 ▲개발 실행 가능성 ▲확장 가능성 ▲도로·대중교통 접근성 ▲주변 의료기관과의 협력 용이성 ▲산업단지와의 연계 가능성 ▲인구 유입 ▲주변 지역 환경 ▲정책적 지원 ▲비수도권 경찰공무원 접근 편이성 등 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후보지로 선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산은 중부권 메가시티 핵심 도시 중 하나로, 전국 어디에서나 2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특히 아산 후보지는 경찰타운에 위치해 전국 경찰공무원이 편리하게 이

용할 수 있다.

또 인근에 대규모 주택단지와 산업 단지가 있어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의료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변 대학과의 의료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한 점도 국립경찰병원 분원 설립 최적지로 꼽힌다.

도 관계자는 “12월 2일 현장 실사와 이후 PT 발표를 대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산에 국립경찰병원 분원이 설립될 때까지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경찰병원 분원 아산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인 지난 4월 27일 충남 지역 공약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경찰청은 ‘경찰병원 분원 건립 TF’를 구성하며 지난 6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했다.

아산을 비롯한 후보지 3곳이 경찰청 요구 조건 충족 여부 확인, 지자체 제출 자료 검토 등 사전 작업과 이번 부지평가위원회 1차 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김정원 jwkim87@korea.kr /균형발전과 041-635-3665

LG화학 당진에 3100억 투자

도-LG화학-당진, 투자협약

당진 석문산업단에 공장 신설

충남도가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자 세계 3위 화학업체인 엘지(LG)화학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

충남도는 11월 16일 도청 상황실에서 엘지(LG)화학, 당진시와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엘지(LG)화학은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23만 8368㎡의 부지 중 4만 5000㎡에 재활용 플라스틱 활용 국내 최초 초임계 열분해유 공장(에어로젤)을 신설한다.

이를 위해 엘지(LG)화학은 2024년 11월까지 3100억 원을 우선 투자하고, 사업 성과에 따라 추가 투자에 나설 예정이다.

초임계 열분해유 공장에서는 재활용 플라스틱을 열분해해 초기 원료

인 나사를 추출한다. 연간 재활용 플라스틱 2.5만톤을 투입하면 2만톤의 열분해유를 생산, 자원 순환과 탄소 중립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차세대 단열재 공장에서는 에어로젤을 생산한다. 에어로젤은 95% 이상이 기체로 구성, 공기처럼 가볍지만 물에 젖지 않고 불에 타지 않는 차세대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대기권에 진입할 때 고열을 견뎌야 하는 우주선과 우주복 등에 사용된다.

도는 엘지(LG)화학의 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당진시 내 생산액 변화 2304억 원, 부가가치 변화 771억 원, 신규 고용 인원은 15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도는 지난달 31일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현대엔지니어링과 한화솔루션 2개 기업으로부터 6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투자입지과 041-635-3388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출범

대일공업 등 도내 7개사 선정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출범식’이 11월 17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대구광역시, 주 최하고 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13개 시·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주관한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은 중소기업부가 혁신 역량과 성장 가능

성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 지역 내 선도(앵커)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이다.

도는 지난 3월 4개사에 이어 ▲대일공업 ▲피토 ▲엠에스메트리얼즈 등 3개사에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서’를 수여했다. 충남 지역혁신 선도기업 7개사는 지역 대표 기업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선언했다.

아울러 대일공업은 이날 출범식에서 다기능 시트 프레임 개발로 사업화 창출을 이뤄내 사업화 매출 35억 원의 경제효과를 달성하고 지역 주력산업 발전에 공헌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역산업 진흥 유공자 포상을 받았다.

이와 함께 도는 중소벤처기업부, 비수도권 타 시·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

/산업육성과 041-635-3934

디스플레이 산업 경쟁력 키운다

충남 디스플레이 기업인 포럼

충남도는 11월 22일 ‘충남 디스플레이 기업인 포럼’을 개최했다.

충남테크노파크와 충남디스플레이산

업기업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산·관·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도내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 동향 및 정보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지역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에 앞장선 기업인과 관계기관 직원 등 5명이 도지사 표창을 수여 받았으며, 박영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원이 ‘디스플레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기획 추진 방향’을 주제로 강의를 펼쳤다.

/산업육성과 041-635-3930

딸기 충남말, 때꿀

농업 관련 충청 사투리

- 땅에 줄기 받는 열매 맺는 풀

‘때꿀’은 ‘딸기’의 충남말이다. ‘때, 따’는 땅의 옛말이니까 ‘때꿀’이든 ‘딸기’든 땅에 줄기를 받는 덩굴풀을 이르는 말이다.

‘때꿀’은 ‘땅’을 뜻하는 ‘때’에 ‘짜리’가 합쳐진 말이다. ‘짜리’는 붉은 열매를 맺는 풀이다. 그래서 ‘때꿀’은 ‘땅에 줄기를 받으며 붉은 열매를 맺는 풀’이 되고, ‘딸기’와 ‘짜리’를 동시에 이르는 말이 되었다.

‘짜리’는 예전 여자아이들의 놀잇감이었다. 가을철이면 30cm쯤 자라 오른 줄기마다 붉은 주머니가 달렸다. 그 붉은 주머니에는 손톱만 한 더 붉은 열매가 들어 있었다. 그 열매에서 씨를 뽑아내면 작은 풍선이 되었다. 여자아이들은 그 열매를 입안에 굴리며 공기를 불었다 뻤다 했다. 그것을

예전 충남 사람들은 ‘때꿀 분다’라고 했고, 1970년대 이후에는 ‘짜리 분다’로 바뀌었다.

‘때꿀’은 보통 ‘딸기’를 이르는 충남말이다. 충남 사람들은 땅에 줄기를 받으며 붉은 열매를 맺는 풀은 다 ‘때꿀’이라 했다. 일제강점기에는 육종된 서양 딸기가 들어왔다. 이는 ‘양때꿀’이라 불렀다. 산에 덩굴을 받는 딸기는 ‘산때꿀’이 되었다. 초여름이면 지릿한 맛만 줄줄 흘러내리는 ‘배양때꿀(뽕딸기)’에 눈길을 보내고, 장마철이 끝나면 아이들은 산기슭이나 개우장독(개울독)을 더듬어 멍석때꿀(멍석딸기)을 따 먹었다.

‘때꿀’은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표준어화에 따라 바뀌었다. 일제강점기엔 ‘딸구’라는 말이 생기고, ‘때꿀’과 같은 말인 ‘뽕꿀’이 지역과 사람에 따라 충남 전역에 널리 쓰였다.

/이명재 충청언어연구소장

꼼꼼한 방역으로 고병원성시로부터

가금 농장을 지켜냅시다!

축사 야생동물 차단 조치

농장출입 차량과 사람을 엄격하게 통제

축사출입 시 전실에서 손 소독 및 전용장화로갈아신기

소독·방역시설이 없는 농장의 부출입구와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은 폐쇄

꼼꼼한 방역으로 안전한 가금농장을 만듭시다!



사진 부문 최우수상 '은하수가 흐르는 밤'



영상 부문 최우수상 '내가 사랑한 충남(영상썸네일)'

충남관광 사진·영상 수상작 선정

충남도는 '2022 충남관광 사진·영상 공모전' 수상작 56건을 선정·발표했다. 사진 부문 최우수상에는 성홍산성의 색다른 멋을 담아낸 '은하수가 흐르는 밤'을, 우수상에는 '태안 안목도와 은하수', '공룡이 나타났다'를 뽑았다. 영상 부문 최우수상에는 충남의 아름다움을 그려낸 '내가 사랑한 충남'을, 우수상에는 '가을에 떠나는 충남여행'을 선정했다. /관광진흥과 041-635-2442

충남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확정

(내년 1월 1일 시행)

답례품 선정위원회서 15종 선정 향후 관광상품 등 답례품목 확대

충남도는 충남의 정성과 특색을 담은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15종을 최종 선정했다.

도에 따르면 답례품 선정위원회는 11월 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열고, 46개 후보 품목을 대상으로 상품 경쟁력, 지역 대표성, 유통 안정성 등을 고려해 평가를 진행했다.

답례품은 ▲명품수삼세트 ▲15개 시군 쌀 꾸러미 ▲전통주 꾸러미 ▲젓갈류 꾸러미 ▲과실주 ▲감태 ▲6쪽마늘 ▲한우세트 농산품 8종 ▲홍삼진액(농축액) ▲머드제품 ▲계장 특산품 3종이 선정됐다.

이와 함께 공예품으로 ▲철화분청사기 어문병 ▲동탁은잔세트 ▲백제금동대향로(모형), 백제 다기세트 4종을 선택했다.

이 중 전통주와 과실주, 머드제품, 6쪽 마늘, 홍삼진액(농축액), 한우세트

답례품

- ▲명품수삼세트
- ▲15개 시군 쌀 꾸러미
- ▲전통주 꾸러미
- ▲젓갈류 꾸러미
- ▲과실주
- ▲감태
- ▲6쪽마늘
- ▲한우세트 농산품 8종
- ▲홍삼진액(농축액)
- ▲머드제품
- ▲계장 특산품 3종
- ▲철화분청사기 어문병
- ▲동탁은잔세트
- ▲백제금동대향로(모형)
- ▲백제 다기세트 4종

등은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으며, 답례품목에 이름을 올렸다.

공예품 중 동탁은잔세트는 백제시대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은잔을 실물과

유사하게 만들고, 문양을 조각해 충남만의 특색을 담고 있다.

도는 공급업체를 선정해 답례품 공급 관련 업체 교육 및 배송 준비를 마치고, 답례품 정보시스템(고향사랑e음)에 등록, 내년 1월 1일 제도 시행과 동시에 전국을 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충남 지역 외 거주자가 도에 일정액(500만 원 이내)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액의 30%(최고 1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역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및 청소년 지원,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 주민복지 증진사업에 활용된다.

윤동현 청년공동체지원국장은 "앞으로 답례품 선호도 및 만족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고품질의 다양한 답례품목을 확대 발굴하고, 관광이나 체험상품 등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통체정책과 041-635-2274

도, 재정운용 최우수기관 선정

3년 연속 우수 인센티브 확보

충남도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올해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으로 2020년 효율성 분야 우수기관, 지난해 계획성 우수기관에 이어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은 매년 전국 243개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비교·분석·평가하는 지방재정 모니터링 제도다.

도는 재정효율성 분야에서 지방세수입비율, 지방세수입 증감률, 지

방세징수율, 지방보조금비율, 지방보조금 증감률, 자체경비비율 등 대부분의 지표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재정계획성 분야에서는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이·불용액비율 등 재정계획 및 집행 관리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 혁신도시 기반시설 조성 등 당면 현안 과제 해결은 물론 경상경비 절감, 전략적 예산투자 등을 통한 세출 구조조정, 자체 세입기반 지속 확충으로 재정건전성 및 효율성 증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산담당관 041-635-3164

10년 간 법정다툼에 눈물

국내외 충남 문화유산 다시보기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원 수장고에는 충남 연고의 고려시대 보살상이 보관되어 있다. 이 보살상은 현재까지도 그 소유권이 법정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이다. 이 보살상은 결과부좌(結跏趺坐)한 형태로 높이가 50.5cm 정도인데, 그 양식이 대체적으로 고려시대의 전통적 요소들을 반영하지만 세부 장식에서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다면 이 보살상의 소유권은 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이 보살상은 지난 2012년 한 문화재 전문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의 관음사(觀音寺)에서 밀반입된 후 국내에 알려졌다. 보살상의 복장유물(腹藏遺物) 중 발견된 발원문(불상의 조성 내력을 보여주는 글)에서 불상을 봉안하는 목적이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 관음보살상을 조성하여 부석사에 봉안하고, 그럼으로써 모든 중생이 복을 받아 후세에 아미타정토에 태어나기를 빈다'는 내용이 발견되었다.

특히 발원문 중의 '고려국서주부석사(高麗國瑞州浮石寺)', 천력삼년이월(天曆三年二月)이라는 글귀를 근거로 1330년 서산 부석사에서 조성된 것이 밝혀졌다.

때문에 '보살상이 장물이므로 관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의견

과 '발원지가 명확하고, 고려 말 왜구가 약탈해 갔을 가능성이 높아 돌려주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고, 이 대립이 법정공방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2017년 대전 지방법원에서 내려진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보살상을 부석사로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이 즉시 항고하면서 대전 고등법원에서 현재까지도 지루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6월에는 대마도 관음사 주지승이 재판에 참가하여 '1527년 관음사 창설자가 조선에서 이 보살상을 가져와 법당에 뒀고, 1953년 관음사 종교법인 설립 이후 명확한 소유 의사를 가지고 지금까지 소유했으므로 보살상은 관음사 소유'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원고인 부석사 측은 '1527년 관음사가 고려불상을 적법하게 취득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 보살상 문제는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리든 논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보살상의 밀반입 문제를 지적하는 입장과 문화재 약탈과 환수에 대한 국민적 감정이 크게 대립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에서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역시 재판부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박진호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문화유산교류협력부 선임연구원

도정게시판

"결핵 없는 세상으로 한 걸음 더"

충남도와 대한결핵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가 크리스마스 쉼 모금 운동을 전개한다.

도는 11월 21일 크리스마스 쉼 증정식을 갖고, 대한결핵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에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도는 내년 2월까지 목표 모금액 7900만 원을 달성할 계획이며, 모금액은 ▲학생 결핵환자 대상 '행복나눔 지원비' ▲취약계층대상 결핵검진 사업 ▲결핵 조사·연구 및 기술지원 사업 등에 전액 사용된다.

/감염병관리과 041-635-4363

경비·청소 노동자 장갑·귀마개 지원

충남도는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와 도내 공동주택 노동자를 위한 방한용품 지원한다.

경비·청소·시설관리 등 겨울철에 취약한 옥외 노동자에게 장갑·귀마개 등 방한용품을 전달한다.

지원 대상은 사전 신청한 도내 공동주택 중 271단지 총 2850명의 노동자이다.

/일자리노동정책과 041-635-2243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

충남도와 도의회, 경찰청, 교육청, 아

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아동학대 범죄 근절 및 아동 권리증진을 통해 '모든 아동이 똑같이 누리는 충남'을 실현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도는 11월 1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학대 예방 유관기관의 유기적 지원체계 확립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의 정책제언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출산보육정책과 041-635-4546

코로나19 진단키트 3만 개 기탁

충남도는 11월 18일 에스디바이옌서(주)와 ㈜링코제일, e대한경제신문사로부터 코로나19 자가 진단키트 3만 개(6600만원 상당)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기탁 받은 진단키트는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내 의료취약계층에 전달할 예정이다.

/사회복지과 041-635-4254

품목별 농업인 한자리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도 품목농업인연구연합회와 11월 16일 예산 스피클스

리움에서 '제2회 충남품목농업인연구연합회 전진대회'를 개최했다.

대회는 유공자 표창, 농업기술명인 및 우수연구회 등 시상 후 우수농·특산물 품평회, 축하공연 등 순으로 진행했다.

또 도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쌀 1500kg을 기탁하는 나눔 행사도 마련했다.

도 품목농업인연구연합회는 품목별로 조직된 농업인들의 연구모임 연합체로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 041-635-6142

밀·보리 겨울나기 요령제시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밀과 보리 같은 동계 맥류의 풍년농사를 위해 꼭 필요한 파종 후 겨울나기 요령을 제시했다.

월동작물인 맥류는 습해에 매우 약해 땅이 얼기 전 물이 잘 빠지도록 배수로 정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습해가 발생한 재배지에서는 물을 빼내 뿌리의 활력을 좋게 하고, 요소 2%액을 10a당 100리터씩 2~3회 잎에 뿌려 회복을 도와야 한다.

반대로 건조할 경우에는 맥류에서 작물이 자라고 있는 골을 밟아준다.

/충남도 농업기술원 041-635-6058



일자리 선순환 체계 구축한다

도, 기업·대학 상생 발전 협약
26개 대학, 대기업 8곳 참여
기업 아카데미·계약학과 운영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도와 26개 대학, 6개 기업 인단체, 8개 대기업, 다국적기업인 에스에이피(SAP)코리아가 참여했다. 대학은 도내 29개 대학 중 글로벌사이버대, 공주교육대, 한국전통문화대를 제외한 26개 대학이, 8개 대기업에는 롯데케미칼, 삼성디스플레이, 한화토탈 에너지스, 현대오일뱅크,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케이티(KT), 엘지(LG)화학 등이다. 협약에 따라 도는 ▲산·학·관 상생 협의체 운영 지원 ▲대학 계약학과 및 기업 아카데미 운영 지원을, 대학은 ▲계약학과 설치·운영 ▲재학생의 아

카데미 참여 지원을, 기업은 ▲아카데미 등의 프로그램 운영 ▲계약학과와 일자리 창출 활성화 노력 등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대기업이 운영하는 '디지털 아카데미'를 도내 신설해 운영할 예정으로 다국적기업 에스에이피(SAP)코리아와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국내 기업 케이티(KT)가 참여하기로 했다. 또 대학과 협업해 교육부 공모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대학 내 채용조건형 및 재교육형 계약학과를 추가 설치하는 등 도내 대학에 계약학과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기업지원과 041-635-3438

충남도가 지역 인재들이 지역 산업경제가 요구하는 자질과 능력을 갖춰 지역에서 채용되고 정주할 수 있는 '충남 일자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도내 대학·기업과 협력을 강화한다.

도는 11월 1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내 대학, 대기업, 기업인단체 등 41개 기업·기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대학과 기업의 상생 발전을



11월 16일 열린 '충남도·대학·기업 상생발전 협약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새는 물 잡아 에너지 절약하고 예산 절감한다

도·5개 군·K-water, 업무협약
충남도는 11월 2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내 5개 군,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시군 우수율 통합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부여·서천·태안·홍성·예산 등 5개 군의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준공 이후 복원 누수 차단 및 효율적인 우수율 유지·관리를 위해 추진

했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수자원공사는 가정 '우수율 관리 기술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해 시군에 우수율 관리 관련 기술 지원에 나선다. 5개 군은 우수율 관리 기술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절차를 이행하고 기술 지원 내용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수도시설을 유지·관리한다. 협약을 통해 통합 관리가 잘 이루어

진다면 다시 땅으로 새는 물을 잡아 연 생산비 127억 원을 절감해 시군 수도사업 경영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누수량 저감으로 추가 물 생산에 따른 에너지 소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신규 수자원 개발 없이 누수량만큼의 추가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관리정책과 041-635-4479

프리지아 신제품 무병 우량묘 보급

도내 프리지아 재배 농가 대상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도내 프리지아 재배 농가 대상으로 무병 우량묘를 보

급한다. 이번에 보급하는 프리지아 무병 우량묘는 도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신제품으로, 골드문과 화이트문 등이다.

프리지아는 구근으로 번식하는데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잎에 연한 황색의 모자이크 무늬가 나타난다. 심하면 연한 녹색 부분이 괴사해 상품성과 생산량을 감소시켜 농가소득에 많은 피해를 준다. /충남도 농업기술원 041-635-6087

서천 불소곡주, 우리술 품평회 '대상'

도, 지역 전통주 산업 지원 강화

충남 서천 불소곡주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주최한 올해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에서 기타주류 부문 대상을 받았다.

이번 수상으로 도는 지난해 같은 부문 대상을 차지한 '천안 두레앙 브랜드'에 이어 2년 연속 대상 수상 뿐만 아니라 품평회가 처음 개최된 2010년부터 13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불소곡주는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19호로 지정된 우희열 명인이 찹쌀과 누룩 등의 재료를 넣어 빚어낸 고품격 증류주이다.

전통방식 그대로 증류한 뒤 오크통에서 장기간 숙성시켜 소곡주 특유의 풍미와 스모키한 향이 잘 어우러진 것이 특징이다.



대상을 차지한 한산소곡주명인 농업회사법인(주)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이 수여되며, 각종 관측활동이 지원될 예정이다.

올해 13회를 맞은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는 국가 공인 주류 품평회로, 매년 총 5개 부문(탁주, 약청주, 증류주, 과실주, 기타주류)에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3점씩 총 15점을 선발하고 있다.

/농촌활력과 041-635-2533

배스로 만든 어묵 식감·맛 '호평'

생태계 교란 어종 상품 시식회

충남도는 최근 내수면 생태계 교란 어종인 배스를 원료로 만든 어묵·핫바의 일반인 대상 시식 평가 결과, 기존 시제품보다 식감이 쫄득하고 맛은 동등하다는 평가를 받아 산업화 추진 가능성을 확인했다.

도는 11월 18일 '내수면 생태계 교란 어종 활용 개발 상품 시식회'를 개최했다.

블라인드(정보 가림) 선호도 조사 결과 무효표를 제외하고 어묵 제품은 배스에 스티커를 붙인 사람이 117명, 일반 시제품이 49명으로 나타나 배스 활용 제품을 꼽은 사람이 130% 정도 압도적으로 많았다.

핫바 제품도 배스에 스티커를 붙인 사람이 94명, 일반 시제품이 71명으로 배스 원료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32% 더 많게 나타났다.

/어촌산업과 041-635-4848

충남안전체험관서 심폐소생술 배워요

올해 279개 기관·단체 방문

충남안전체험관을 찾는 기관·단체 관계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충남안전체험관에 따르면 11월 21일 기준 올해 체험관을 다녀간 교육 관련 기관과 단체는 총 279곳으로 집계됐다.

체험관은 심폐소생술과 같은 응급 처치 방법을 배우고자 하는 단체는 물론 일반인들의 문의가 큰 폭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사항은 체험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충남안전체험관 041-559-9740

국제적 추상미술양식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세계적인 화가, 고암 이응노
화백 삶과 예술

동양의 한자와 세계 문명의 문자 시원을 연구하던 이응노는 동양의 상형문자와 금석문, 페르시아 문명의 췌기문자(수메르어, 고대 페르시아어 등), 아랍문자, 유럽 전통의 캘리그래피 등을 자유자재하게 구성하여 현대미술의 새로운 추상양식을 실험한다. 나무, 바위, 구름, 새, 곤충, 말, 사슴, 거북이 등 자연사물과 동식물의 형상, 사람 형상, 각종 문자를 결합하여 마침내 문자추상(Composition, 구성) 시리즈를 탄생시켰습니다. 이후 태피스트리(직물), 현 목재, 나무가구, 양털, 솜, 한지, 도자기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독특하면서도 생명력이 넘치는 문자추상 작품으로 확장시켰다. 복잡한



고암 이응노, 문자추상, 수산복해壽山福海, 한지에 수묵, 32x41cm, 연도미상



고암 이응노, 문자추상, 한지에 수묵담채, 38.7x40cm, 1972

구조의 문자와 동식물의 형상이 결합하면서도 간결한 짜임새와 3차원적 깊은 공간감을 유럽 예술인들에게 높은 찬사를 받기에 충분하였다.

이응노가 주장하였던 "동양미학을 근간으로 한 서양미학과 결합", 그리고 "동양과 서양미술의 구분을 넘어서는 동시대적 현대미술 추구"

의 결실이 "문자추상"이라는 현대적 양식으로 탄생한 것이다. 아울러, 이응노는 새로운 예술형식을 다양한 재료들로 실험하면서도

서화, 수묵, 풍경, 인물, 화조, 사군자 등 자신을 이끌고 깨우치게 하였던 전통을 계승하며 새로운 현대미술 형식의 창작이라는 흐름을 놓치지 않으며 부단하게 노력하였다. 그는 쉽없이 작품을 제작하였고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부지런하게 사색과 소묘를 연습하였다. /황찬연 DTC아트센터 예술감독

▶ 작품설명

고암 이응노의 문자추상 작품의 구성원리를 엿볼 수 있는 작품들이다. 왼쪽 작품은 '수산복해壽山福海'인데 상형문자와 전서체 형식을 빌려 추상적으로 표현하였다.

오른쪽 작품은 동물과 사람의 형상을 결합한 듯 보이는데 내부의 복잡한 선들은 비워내고 외곽의 선들만으로 간결한 형상만을 남겨놓았다.

충청남도, 행사·축제 안전기준 강화



충남도가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지역축제와 행사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축제·행사 안전점검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신설·강화된 기준들은 충남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1월부터 즉각 시행된다. / 도정신문팀

01

축제·행사 안전점검 세부기준 마련(도 자체)



신설 입장객 수 제한기준 마련
가용면적 대비 4㎡당 1명 입장(기상악화시 0.7명)



신설 안전요원 배치기준 마련
이용객 200명 당 1명(소음발생 상황시 50명당 1명)



신설 인파관리 요원 전담 배치



강화 [당초]사전 안전점검만 ▶ [변경]점검결과 반영여부 추가점검 실시



강화 [당초]동선계획만 수립 ▶ [변경]관람동선, 대피동선 구분하여 마련



강화 [당초]수용인원 초과대책 ▶ [변경]수용인원 초과대책 구체화 (입장통제, 분산유도 등)



02

주최자가 없는 행사 안전관리 강화



단기 강화된 도 자체 매뉴얼을 적용하여 행사안전 도모
※ 연말연시(성탄절), 해넘이·해맞이(왜목마을, 국립공원 등) 다중 밀집상황 적극 대응



장기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안전관리 의무 법제화(행안부)

03

2023년 도비보조 축제·행사 안전관리비 확보

: 교부조건에 안전관리비 반영 추진



외연도·녹도·호도 주민 고립위기 넘겨...여객선 정상화

여객선 운항 중단에 행정선 긴급 투입 유류비와 인건비 등 운항 결손비 보조

[보령] 충남 보령 섬 주민을 실어나르는 정기 운항 여객선이 폐업신고서를 제출해 운항이 중단된 지 하루 만에 다시 정상 운항됐다.
21일 보령시에 따르면 유류비 상승 등 적자를 이유로 폐업 신고를 했던 신한해운이 지난 19일부터 대천항과 호도·녹도·외연도를 연결하는 여객선 운항을 재개했다.
시가 유류비와 인건비 등 운항 결손비를 보조하는 쪽으로 해운사와 협의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이번 주 중 신한해운과 안정적인 항로운항 관련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앞서 신한해운은 폐업 신고를 하고 지난 17일까지만 해당 항로를 운항하겠다고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 통보했다.
이에 시는 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8일 행정선을 긴급 투입했다.
이날 하루 녹도 17명, 호도 14명, 외

연도 36명 등 모두 67명의 주민이 행정선을 이용했다.
배편 외에 대체 교통수단이 없는 호도·녹도·외연도에는 주민 779명이 살고 있다.
보령시 관계자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 내년 2~3월 이 항로를 국가 보조항로로 지정 신청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며 “지정 전까지는 시가 유류비 등을 보전해 해운사가 운항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일 시장은 “섬 주민의 안정적인 교통 편의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령시 제공



해운사가 유류비 상승 등에 따른 적자를 이유로 항로 폐업 신고를 내 고립 위기에 처한 충남 보령 호도, 녹도, 외연도 주민들이 18일 시가 마련한 행정선에 올라타고 있다.



논산한옥마을 전경

예학의 자태 품은 논산한옥마을 문열어

연중무휴 운영되는 문화공간 에스러운 멋, 한옥서 숙박·체험

[논산] 예학의 고장 논산시가 지닌 전통적 명맥을 현대적으로 재현한 ‘논산한옥마을’의 문이 활짝 열렸다.
논산시는 21일 오후 2시 논산한옥마을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논산한옥마을은 기호유학의 본산인 논산 둔암서원의 옆에 자리했으며, 시는 선조들의 삶과 지혜를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자세로 이어받아 전통적 건축 기법과 현대

공법을 조화롭게 적용해 제반 시설을 완성해냈다.
에스러운 멋이 스며있는 인테리어와 소품으로 꾸며진 객실은 총 7세트 12개가 준비돼 있으며, 규모와 취향에 따라 각양각색의 한옥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형태로 구성됐다.
논산문화관광재단이 논산시로부터 위탁받아 올해 6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재단은 논산한옥마을을 전국적 명소로 거듭나게 하고자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 향후 예약·문의·홍보 서비스 등에 만전을 기울이며 품격있

는 체류형 관광 명소로 만들어간다는 목표다.
재단 관계자는 “전국의 많은 관광객들이 논산한옥마을에서 시간을 보내며 예학 정신과 유교문화의 진면모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란다”며 “지역 내외의 많은 분들이 함께 한옥문화를 향유하고 논산 고유의 매력에 빠질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논산한옥마을은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공식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하면 된다.
/논산시 제공

한우 수급 불균형 선제 대응

암소 감축 지원 사업 추진

[당진] 당진시는 한우 수급 불균형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4분기 한우 수급 상황은 전년 대비 출하 가능 물량이 6~9.2%가량 증가해 평균 도매가격은 1만 8500원~1만 9000원 선으로 예측되며 향후 수요 위축으로 도매가격 하락 폭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최근 당진축협 송아지 경매시장 낙찰가 현황을 살펴보면 한우 송아지 낙찰가 평균은 전년 평균 대비 각각 34%, 22% 떨어져 암송아지 225만 원, 수송아지 346만 원으로 본격적인 한우 값 하락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시는 중장기적 한우 수급 불균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급년 암소 감축 지원 사업 추진을 통

해 40개월령 이하 암소 479두를 도축했고 내년에도 같은 수준의 암소 도축을 통해 중장기 한우 수급 불균형 해소에 지속적으로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올해 암소 감축에 대한 장려금은 미경산우는 두당 20만 원, 경산우는 두당 1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장려금 신청은 경산우인 경우에는 당진축협, 미경산우는 (사)전국한우협회당진시지부에서 25일까지 접수 받고 있다.
장명환 축산지원과장은 “현재 한우 수급 단계는 수급 조절 매뉴얼 상 경계 단계로 아주 가까운 미래에 상당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태”라며 “한우가격 하락과 생산비 증가로 인한 한우농가의 채산성이 크게 악화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송아지 입식 자제, 저능력 암소 감축 등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당진시 제공



당진지역의 한 한우농가

군민안전보험 개물림사고 등 확대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부여] 충남 부여군은 군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협, 군 북부 청년 상해보험을 갱신했다고 2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들 보험 3종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다만 군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협은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은 사망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사건·익사사고·의료사고 법률지원 등이다.
자전거보협은 본인 사고·사망 시 500만 원, 자전거사고로 인한 후유장애 시 장애 정도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군 북부 청년 상해보험은 군에 주소 두고 있는 청년이면 입영과 동시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휴가나 외출 시 입은 상해를 포함해 전역일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장 금액은 상해 및 질병 사망 시 3000만 원, 상해·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 시 장애 지급률에 따라 최대 3000만 원,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 시 일당 3만 원, 골절 및 화상 진단 시 30만 원이다.
보장 기간은 2022년 10월 16일부터 오는 2023년 10월 15일까지다.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피해를 입은 군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주민등록등본·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갖춰 해당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부여군 제공

지역 단신기사

만 65세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계룡] 계룡시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무료예방 접종을 실시한다.
시 보건소에 따르면 폐렴구균은 폐렴의 주요 원인이 되는 균으로, 우리나라 사망원인 중 폐렴은 암, 심장 질환에 이어 국내 사망 원인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면역력이 떨어지는 어르신과 만성질환자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23가 다당질 백신(PPSV23) 예방 접종을 한 번도 맞지 않은 어르신으로, 접종은 지정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며, 접종 가능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내 접종 의료기관으로는 계룡출타터, 김광석외과, 김민정소아과, 박상준내과, 연세가정의학과, 정소아과, 한솔의원이 있으며, 접종 희망자는 신분증을 지참 후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계룡시 제공

‘스포츠 클라이밍장’ 조성

[서산] 충남 서산시 종합운동장 일원에 ‘스포츠 클라이밍장’이 조성된다.
서산시는 내년부터 사업비 19억 원을 투입, 2024년 준공목표로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민선 8기 공약인 이번 사업은 늘어나는 생활체육 인구에 비해 공공 체육인프라 부족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시는 내년 시비 1억 원을 확보해 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시설 규모, 시설계획, 사업비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비 또는 공모 신청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고, 2024년까지 총사업비 19억 원(추정)을 투입한다.
사업 규모는 18m 높이의 야외 인공 암벽장 시설 1개 동, 250㎡ 규모의 실내암벽장, 사무실 등이 들어선다.
2024년 파리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된 클라이밍은 날씨와 관계없이 실내에서도 즐길 수 있는 운동으로 국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시는 스포츠 저변 확대와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서산시 제공

천안 대표 관광자원 '8경' 으로 재탄생

독립기념관·광덕산 등
홍보 프로그램과 연계

[천안]천안시가 그동안 12경으로 관리해 온 천안의 관광자원을 8경으로 재선정했다.

천안시는 천안 대표 관광자원 재선정을 위해 실시한 시민과 관광객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정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천안 8경'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12경은 천안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내세우고 활용하기에 적절치 않은 곳이 있다는 시민여론을 반영해 천안의 대표성, 상징성, 경관 및 문화·역사의 우수성, 보존가치, 대중성 및 활용성 등 항목 평가를 거쳐 8경으로 정비를 마쳤다.

선정된 천안 8경은 ▲1경 독립기념



7경으로 선정된 광덕산 설경.

관 ▲2경 유관순열사사적지 ▲3경 천안삼거리공원 ▲4경 태조산 왕건길과 청동대좌불 ▲5경 아라리오조각광장 ▲6경 성성호수공원 ▲7경 광덕산 ▲8경 국보 봉선홍경사갈기비이다.

독립기념관과 유관순열사사적지는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역사를 간직하고 기록한 민족의 성지로, '천안은 애국 총정의 고장'이라는 자긍심과 시민정신을 드높이는 관광자원으로 평가받아 1경과 2경으로 각각 선정됐다. 특히 독립기념관에서는 2023년 천안 K-컬

처 박람회로 시작으로 2026년 K-컬처 세계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재개발사업을 통해 문화와 자연이 공존하는 근린공원으로 새롭게 재탄생할 '천안삼거리공원'은 삼남의 관문 역할을 했던 명성에 비해 볼 것이 부족했으나 앞으로 준공되면 역사적 상징성과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고려 태조 왕건이 천안도독부를 세운 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태조왕건기념공원 조성 및 콘텐츠를 개발 중인 '태조산 왕건길'은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태조산 각원사에 위치한 등양 최초 최대 불상인 청동대좌불은 남북통일의 염원을 담아 제작돼 45년 넘게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끌어 왔으므로 다양한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아라리오조각광장은 현대 미술계 거

장들의 대형작품이 즐비한 곳이다. 국내외 미술가들 사이에서 반드시 가봐야 할 장소로 유명한 이곳은 산업도시 천안에 문화와 예술을 입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성성호수공원은 친환경 힐링 수변공원으로 고품격 예술 공연과 미술전시회를 연중 개최할 예정으로 더욱 많은 관광객의 방문이 전망된다.

광덕산은 설경뿐만 아니라 단풍, 일몰 등 사계절 절경 및 다양한 보물과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어 단연 선정됐다. 봉선홍경사갈기비는 천안 유일한 국보이자 역사·문화 유산으로 상징성, 보존성 등 앞으로의 활용 가치를 인정 받았다.

시는 앞으로 각종 매체를 통해 천안 8경 홍보 및 투어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등 다양한 관광 마케팅에 활용할 계획이다. /천안시 제공

월드컵 응원도구 함께 만들어요

고남패총박물관 체험 프로그램
빨소라 모양 응원나팔 만들기

[태안]태안군 고남패총박물관이 카타르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특별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군은 12월 31일까지 고남패총박물관 제1전시관에서 '2022 카타르 월드컵 기념 빨소라 모양 응원나팔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키로 하고 11일부

터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월드컵 경기 시 응원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나팔을 만드는 것으로, 군은 패총에서 출토된 바 있는 빨소라의 모양에 착안해 입장객들에 즐거움을 선물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만 3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휴관일인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프로그램 관련 기타 자

세한 사항은 고남패총박물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개관 20주년을 맞아 연중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군민 및 관광객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콘텐츠 확충 등 즐길거리 가득한 고남패총박물관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남패총박물관에서는 개관 20주년을 기념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조개모양 가방고리 만들기'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돼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태안군 제공



계룡시 향적산에 조성된 유아숲체험원

유아숲 체험원 조성...자연과 교감해

산림의 다양한 기능 체험
정서 함양·전인교육 기대

[계룡]계룡시가 엄사면 향한리 일원에 유아숲체험원을 준공하고 내년 3월부터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유아숲체험원은 유아 산림의 다양한 기능 체험을 통한 정서 함양 및 전인적(全人的) 성장을 위해 제공되는 공간이자 숲이다. 놀이 자체가 배움이 되는 교육의 장으로 유아숲지도사와 함께 뛰놀고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는 시설이다.

시는 자연체험 중심의 공간 조성을 위해 시설 위주의 하드웨어적 접근

보다는 숲을 만나고, 숲을 발견하고, 숲과 하나가 되는 체험활동 위주의 소프트웨어적 체험원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숲교육은 창의성·탐구능력 등 유아 학습능력 향상, 환경감수성 증진, 인지적·정서적·사회적 자아개념 형성, 면역력 향상, 심리안정, 사회성 발달 등 유아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순기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를 위해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잔디광장, 야외학습체험장, 30가지 이상의 꽃과 나무를 식재하는 등 유아가 숲에서 자연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마련했다.

/계룡시 제공

암환자 가발 구입비 50만원 지원

8월 30일 이후 구매 소급 적용

[공주]공주시가 2023년부터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탈모를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가발 구입비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중 항암치료로 인한 탈모로 가발이 필요한 공주시민이다.

신청일 기준 공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탈모가 심해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한다.

제출 서류는 의사 소견서와 가발 구입 영수증으로, 신청 시 1회에 한해 가발 구입비의 90%,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가발비 지원은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올 8월 30일 이후 가발을 구매한 암환자의 경우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단, 타 사업의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주시 제공

의미있는 삶을 향유하자

▶내포문화숲길, 마음으로 걷다
- 내포역사인물길 5코스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지는 가을 풍경을 감상하며, 내포역사인물길 5코스를 걸었습니다. 이 길은 한적한 시골길을 걷어가는 여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유를 즐기며 걸어가다 보면, 성삼문 유허지가 나타납니다. 이곳이 성삼문 선생이 태어난 집터라고 합니다. 잘 알다시피 성삼문은 수양대군이 단종의 왕위를 빼앗자 단종의 복귀를 꾀하다 능지처참된 사육신 중 한 분입니다.

성삼문은 체포되어 달군 쇠로 다리의 살을 뜯고 팔을 잘리는 고문을 당하면서도 세조의 불의를 나무랐다고 합니다. 그 심한 고통 속에서 어떻게 불의를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앞으로 다가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인간이기

에 그도 죽음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절명시라고 알려진 시구를 보면, "북소리를 울려 목숨을 재촉하고 / 고개를 돌리니 해가 저무는구나! / 황천길에는 주막도 없는데 / 오늘 밤은 뉘 집에서 묵을 것인가"라고 죽음을 두려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시를 보면, 죽음은 외로운 길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죽음의 문턱까지만 따라올 뿐 그다음부터는 오직 나 혼자 가야만 하나지요. 역시 누구에게나 죽음은 지독하게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시를 남겼겠지요.

두렵다고 느끼는 자체가 인간의 삶입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살아 있기에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두려운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며, 죽음이 오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죽음 앞에서 성삼문도 바라고 원하는 일을 행함에 후회하지 않고, 삶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두려운 죽음 앞에서 성삼문은 삶을 그 자체로 향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삼문은 단순히 긴 삶이 아니라,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살아가는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영원히 살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는 누구나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 있는 동안 의미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직 그럴 때만 즐겁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나도 그렇게 죽음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을까요? 나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이경복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내포문화진흥센터장

예당호 모노레일 관광객 유입 효과

1개월간 3만 5200여명 탑승

가족 단위 관광객에 큰 인기

[예산]예산군이 지난 10월 8일 개통한 예당호 모노레일의 1개월간 운영을 분석한 결과 예당호 관광객 증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 분석 결과 1개월간 총 탑승인원은 3만5266명으로 성인 2만9602명(83.9%), 청소년 519명(13.6%), 어린이 480명(13.6%), 기타 343명(1.0%)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65세 이상은 7495명(21.2%)으로 집계됐다.

특히 모노레일은 예당호 수변경관을 열차에 탑승한 채 편하게 관람할

수 있어 걷기 불편한 어르신 및 유아 동반 단체와 가족 여행객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예당호 모노레일은 오전 9시부터 매시간 정각에 30분 단위로 평일 2대(12분 간격), 주말 3대(8분 간격)를 운행하고 있으며, 탑승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시간대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동절기인 2월까지는 저녁 8시까지 운행한다.

또한 저녁 6시 이후 야간 운행 탑승인원은 총 3527명(10%)으로 모노레일 야간경관조명 및 출렁다리 경관조명과 음악분수, 레이저 쇼 등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해 큰 인기를 끈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군 제공



효도폰의 아쉬움

내포칼럼



서창수
순천향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알뜰폰 일명 효도폰이 당초 인기만큼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연령이 높은 어르신들에게 실제 자주 사용되지 않는 복잡한 기능은 없애고, 통화기능 위주로 만든 폰으로 사용도 편리하고 통신료도 저렴하여 초반에 인기를 끌었으나, 최근 수요가 예상만큼 늘지 않고 실제 어르신들에게도 인기가 그다지 높지 않다고 한다.

왜 그럴까? 기능이 정상 폰에 비하여 부족하거나 서비스 수준이 낮은 것이 표면적인 이유인데, 자세히 들여다 보면 사실은 다른데 이유가 있다. 알뜰폰을 쓰면 주위에서 나이드 노인으로 보고, 취약층으로 보거나 없인 여기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 말 못할 이유다. 어르신이지만 어르신으로 보이는 것이 싫은 것이다.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복잡한 기능을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알뜰폰을 쓰는 자책만으로 뒤쳐진 느낌을 받거나 주위에서 좋지 않은 것 같은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이다.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관심 갖게 하기 위해서는 노인스럽게 만들거나 노인만을 위한 것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뒤늦은 깨달음이다. 당사자들이 정작 노인으로 보이는 것을 싫어한다. 어르신만을 위한 지역이나 구역을 설정하거나, 어르신만을 위한 화장품을 만들거나, 어르신 전용의 무엇을 만들면 오히려 기피대상이 될 수 있다. 표지나 지 않게 노인과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게 섞일 수 있는 공간을, 노인만을 위한 화장품이라도 겉보기에 노인 화장품으로 보이지 않는 컨셉으로 가야 한다. 고령층이지만 고령으로 보이는 것은 싫다.

가만히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시니어 층일수록 더 젊고 활력 있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분들을 쉽게 발견하게 된다. 70대 연령층에서도 보다빌딩을

위해 헬스센터를 다니고, 산악 자전거를 즐기며, 전국 산을 누비는 매니아 등산객들이 즐비하다. 복장이나 장비도 오히려 젊은 층보다 더 화려하고 더 고급의 것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시니어 층이 단지 소극적인 소비 주체가 아니라 주도적인 생산과 경제활동의 주체로서의 역할과 기능도 활성화되고 있다. 나이 들었으니 지금까지 모아 놓은 돈을 쓰기만 하는 소비층이 아니라, 인생 후반 긴 여유 시간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일을 찾으려는 시니어들이 늘어나고 있다. 소위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들이다. 시니어 층들은 더 이상 자신들을 힘없는 사람, 도움을 줘야 하는 약자로 보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60-70대 이후의 시간을 단지 남은 '여생', 죽기만을 기다리는 어두운 시간, 할 일이 없어서 소일해야 하는 피동적 시간이 아니라 또 다른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능동적 30년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양적 규모 또한 만만치 않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이 18%를 차지할 정도로 고령화 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하였다. 2035년엔 65세 이상이 30%, 2070년엔 46%가 될 것이라고 한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팽창하는 시장이다. 더구나 앞으로 고령층의 가처분 소득 수준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높아진다. 장년층부터 노후를 본격적으로 준비한 세대들이 고령층에 진입하고 있고, 1모작 인생을 마치고 2모작, 3모작을 위한 인생 준비도 본격화하는 세대가 등장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50대 이상의 소비금액이 50대 이하의 소비금액을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수경제(Longevity Economy)의 시대가 오고 있다. 장수경제에서 시니어들은 변방의 끈대가 아니라 MZ세대만큼이나 주체적, 능동적 세대이기를 원한다. 시니어지만 시니어가 아닐 거 기대한다.

고령층이지만 고령으로 보이지 않아 화려한 고급제품 선호

인생의 후반 긴 여유시간 활용하는 액티브 시니어 늘어

빠르게 팽창하는 고령화 사회 생산과 경제활동의 주체로 변신

장수경제의 시대, MZ세대만큼 주체적·능동적 세대이길

태안군, '재난위험 청정도시' 선언의 의미

생생현장리포트



신문웅
태안신문 편집국장

가세로 태안군수가 지난 16일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태안군 조성을 위해 '재난안전 선도도시'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 군수는 최단기간 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AI 기반 스마트 안전 시스템 구축 ▲대형 행사 및 축제 시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 연석회의 개최 ▲지역 민간자원을 활용한 재난안전 시스템 구축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금 시대는 '재난의 시대'라는 말이 있다. 자연 재난은 어느 정도 예견이 가능한 일 일수도 있지만 사회적 재난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곳에서 가면 갈수록 대규모 재난이 현실화 되고 있다.

2007년 태안반도 해상에서 일어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는 전세계사에 기록될 만한 대형 안전 불감증 사고였다. 일순간에 태안반도를 검은 기름으로 버림을 만들어 버린 이 사고 역시 한 재벌 기업이 자사의 이익을 위해 악천후 속에 무리

하게 운항을 하다가 정박해 있던 유조선이 들이 받아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다. 물론 전국에서 달려오신 자원봉사자들의 손길로 태안이 거듭났지만 태안군민들은 아직도 그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나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1029참사'는 막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시스템의 작동 불능으로 대규모 참사로 비화된 예이다.

허점투성이지만 그나마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의 단초가 된 지난 2018년 12월 18일 태안화력에서 발생한 비정규직청년노동자 김용균의 압사 사고 역시 사회적 참사로 기록될 사건이다.

태안군은 당장 현장의 위급상황을 수집하는 AI 기반의 스마트 안전시스템을 구축, 재난 취약시설인 공공 화장실과 인적 드문 골목 등에 사람의 목소리를 인식하는 '안전 비상벨'을 설치하고 경찰·소방·CCTV 관제센터 등에 즉각 통보하는 예·경보 시스템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태안군의 선도적인 재난위험 없는 청정도시 선언이 군민 모두가 안전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보다 튼튼한 태안군 재난안전 시스템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소망하며 충남도와 정부 차원의 관련 예산 지원 확대로 이어져 선언적 의미가 아닌 실질적인 재난위험 청정도시가 현실화되기를 기대해본다.

아무도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 (2)

소중애 문학관의 책들(14)



소중애 동화작가

나는 부임하기 전에 아동발달, 아동심리학등 교육을 받았다. 출석부 정리하는 방법, 서류 기안하는 방법 등 필요한 것은 다 배웠다. 그런데 말썽부리고 오줌 싸고 똥 싸는 애들 뒷처리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운 바가 없었다. 그런 것은 내 스스로 배워야 했던 것이다.

"우리 애는 똥 밖에 버릴 것이 없애요. 여기 애들하고는 달라요."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검게 탄 얼굴에 버짐 피고 빼적 골은 76명의 아이들 틈에서 선생님 아들은 뽀얀 보름달 같았다. 성적 또한 월등 좋았다. 반갑고 좋았다. 말썽만 부리는 아이들 중에서 내게 위로를 줄 아이라고 생각했다. 한 이들이 지나자 이 아이가 소리없이 말썽을 부리는데 나로써는 감당이 되지 않았다. 여단이 문 뒤에 숨었다가 아이들이 뛰어오면 문을 뚫 열어 코피 터뜨리기 의자에 앉으려는 애 의자 빼기 등등. 나는 다친 아이의 학부모가 항의하러 오기를 바랐다. 그래야 똥 밖에 버릴 것이 없다고 믿는 선생님이 현실을 직시 할 것 같았다. 그러나 옛날 학부모님들은

너그러웠다. 코피 터지고 엉덩이 아픈 것 정도는 아이들 사이에 흔히 있는 일 정도로 여겼다.

나는 비겁했다. 똥 밖에 버릴 것이 없다고 굳게 믿는 선생님한테 아무 말도 못하고 3달 후 그 아이를 5학년으로 올려보냈다.

웃픈일도 많았다. 수업 중인데 앞문이 드르륵 열렸다. 할아버지 한 분이 얼굴을 드리밀고 큰 소리로 물었다.

"OO야, 자전거 워따 났냐?"
"문방구 앞에 뒀어유." 할아버지가 문을 단다말고 다시 물었다.
"근디 니네 선상은 뒀냐?"
OO이가 대답했다.
"앞에 있잖아유."

"잉? 오새는 애도 선상을 하나보네." 그리고 문이 닫혔다.

나는 아이들은 아침 이슬과 같고 갓 피어난 무지개 같아서 상처 받기 쉬운 어린 영혼이라고 생각했었다.

다음 해 새 학년을 가르칠 때 내 목소리는 걸걸해졌고 말썽부리는 아이들에게 소리쳤다.

"맞고 나서 후회말고 맞기 전에 조심하자!"
"때려서라도 잘 가르쳐 주세요."
학부모님들도 적극 지원해 주었던 시절이었다.

이 때의 일들을 하루하루 일기를 써 냈는데 나중에 읽으니 눈물 나게 웃겼다. 나는 작가가 되겠다고 결심했다. 독자들과 함께 웃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췌장암의 날을 맞이하여

공공의료원 칼럼

췌장은 '이자' 라고 하며 위에서 십이지장, 소장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장기다. 두부 (head), 체부 (body), 미부 (tail)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췌관은 총담관과 합류하여 바터 뎀대부를 통해 십이지장으로 이어진다. 췌장이 하는 일은 크게 2가지로 나누는데 외분비 기능과 내분비 기능이다. 외분비 기능으로는 췌장에서 소화효소를 만들고 십이지장 쪽으로 배출하여 소화를 돕는 것이다. 소화효소가 췌관을 통해 십이지장으로 분비되면 탄수화물 (아밀라아제), 단백질 (프로테아제), 지방 (리파아제)을 분해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췌장에 병이 생기면 음식물 속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서 영양상태가 나빠지고 체중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

그다음으로 췌장은 내분비 기능을 하고 있는데 호르몬을 분비하여 혈당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췌장의 랑게르한스섬에서 글루카곤 호르몬을 분비해서 혈당을 올리고 또는 인슐린 호르몬을 분비

하여 혈당을 저하시키는 기능인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당뇨병이다.

췌장암의 위험 인자로는 흡연, 음주, 고열량식이 (고기방, 고단백질), 유전적 요인으로 나뉘 볼 수 있다.

췌장암의 증상으로는 초기에는 무증상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조기 발견율이 매우 낮다. 그러나 췌장에 이상이 생기면, 우선 등으로 방사되는 명치 부위의 통증이 전형적으로 나타나면서 심해진다. 특히 식사하거나 누우면 심해지는 경우가 있다. 또 식욕이 부진하거나 지속적인 소화불량이 생기고, 체중이 감소하거나 황달이 생길 수도 있다. 또한 당뇨병이 새로 발생하거나 기존의 당뇨병이 악화되기도 한다.

췌장암의 치료는 원칙적으로 절제 가능한 췌장암은 일차적으로 수술적 치료를 진행합니다. 절제가 불가능한 췌장암은 항암제 치료 & 항암 및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수술한 이후 보조적 항암 요법을 시행할 수 있으며 경계성 절제 가능 췌장암은 수술을 전제로 하되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먼저 시행하는 신

보조적 항암 요법을 권장한다.

췌장암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5년 생존율은 전 세계적으로 5~15%에 불과할 정도로 예후가 나쁜 암이다. 조기 진단이 어렵고, 진행이 매우 빨라 무엇보다 예방과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위험 요인으로 알려진 것들을 일상생활에서 피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발병여부를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의에게 최선의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췌장암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암종 중 발생률 8위, 사망률 5위의 암이다. 서구화된 식생활로 인해 발생률이 급격히 늘어 최근 20년간 두 배 이상 증가해 구미에서는 소화기 계통의 암 중 대장암 다음으로 많으며, 전체 암에 의한 사망 중에서 네 번째 원인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정석
공공의료원 2외과장

전통·젊음의 가치 지닌 '3대가 협동조합'

이광연 대표 “모두를 위한 가치 키우는 기업될 터”

[아산] 사람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위해 뜨겁게 고민하는 젊은 청년이 있다. 영인면 있는 아산사랑주야돌봄센터와 마을부엌, 다양한 복지사업들을 진행하며,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뛰고 있는 3대가 협동조합 이광연(26세) 대표.

평소 지역과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노인요양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광연 대표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접하며,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전통과 젊은 세대와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싶었다.

젊은 기업이 이광연 대표를 만나 3대가 협동조합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좀처럼 보기 힘든 청년과 중년과 장년 세대가 곁고루 모여 이사회를 구성

하고 있는 3대가 협동조합은 중년과 장년층이 청년들의 가능성을 키워주고 지원해주기 위해 모인 단체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분야도 다양하다.

3대가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 가장 먼저 이 대표가 시작한 사업은 시민들에게 부엌을 임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청년들과 함께한 '3대가 마을부엌' 사업이다. '3대가 마을부엌' 사업은 아산시 최초 청년들을 위한 네트워킹 '밥 한 끼 먹자'로 대학생부터 직장인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탄생했다. 이 사업은 음식 만들기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었다는 호평을 얻었으며, 새로운 관계 맺음을 형성해 마을 만들기를 위한 플랫폼으로 작용했다. 이와 함께 운영되고 있는 '3대가 마



3대가협동조합 이광연 대표

을장독대'는 도심 속에서 즐기기 힘든 장 담그기 체험이다. 우리 먹거리의 우수성과 전통을 계승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담근 장은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보관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최신 기기를 이용한 방역서비스(방역필증, 보건소인증소독업소)사



대학에서 전기전자서비스학을 전공한 이광연 대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다.

업이 있다. 한국능력개발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방역관리사 1급 자격증은 3대가 협동조합이 위탁 교육, 자격증 발급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고 있어,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특히 가장 인기 있는 사업은 'PC공방'으로 대학에서 전기전자서비스학을

전공한 이광연 대표의 6년간의 통신 경력과 전문적인 기술을 집약한 사업이다. 그가 조립한 컴퓨터 대수는 약 450대에 달하며, 이곳에서 지금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

이광연 대표는 “3대가 협동조합은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며 “청년의 고통을 알고, 중년의 역할을 통해, 장년의 보람을 만들어 사회적 갈등 해소에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덧붙여 “현재 충청남도 청년정책조정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청년들이 겪는 불편함과 충남도민의 필요성을 발굴해 청년들이 다양한 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온양신문 제공

“날 행복하게 만드는 ‘변하현’ 생활지원사”

70대 어르신들의 제보 전화 “덕분에 행복해 졌습니다”

[당진] 생활지원사는 홀몸 어르신들의 생활 및 활동을 지원하며, 때로는 말벗의 역할로 일상의 안전을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평면 김모 어르신에게도 생활지원사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소중한 존재다.

지난 14일, 김모 어르신은 당신의 일상을 함께하는 생활지원사 변하현(58)씨에게 보답하고 싶다며 직접 본지에 연락했다.

김모 어르신(77)은 “나를 돌봐주는 복지사가 있는데 나한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노인들에게도 전부 잘해준다. 내가 집에 없으니 직장까지 찾아와 잘 있는지 안부도 묻고, 자식처럼 나를 걱정해주고 살뜰하게 챙겨준다”며 “이렇게 따뜻한 사람 덕분에 내가 행복해졌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당진시 남부노인복지관 소속 변하현 생활지원사는 어르신의 제보처럼 주 1회 방문, 2회 전화 통화, 건강 체크, 정서 지원 등 기본적으로 생활



홀몸 어르신들의 든든한 해결사까지 되어주는 당진시남부노인복지관 소속 변하현 생활지원사.

지원사가 해야 하는 업무 이상으로 어르신들을 대하고, 가족처럼 마음을 나누고 있었다.

적절한 생활에 우울감에 빠지는 어르신들, 혼자 있어 외로움과 불편함을 느끼는 어르신들의 집에 직접 방문해 일상생활 속 어려움도 해결해드리고, 때로는 자식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 힘이 되어 드렸다.

변하현 생활지원사는 “어르신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떠한 점이 불편하신지 알게 됐고 성격상 그런 것을 지나칠 수 없어, 직접 찾아보고 해결해 드렸다”면서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도움을 받은 어르신들이 고마워하시니 뿌듯하다”고 말했다.

오히려 자신이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잘 살아가고 있음을 느낀다고 말하는 변하현 생활지원사는 평소 복지 분야에 관심이 많아 어르신들을 만나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찾아보기 힘든 정부양곡, 전기 및 핸드폰 요금 할인, 주거개선 사업 등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찾아 직접 신청해 경제적인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먹고 싶은 음식, 가고 싶은 곳, 어르신들의 사소한 이야기까지 챙기며 따뜻한 감동을 주고 있었다.

돌봄서비스를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놓인 어르신을 돕는 변하현 생활지원사는 “힘든 시기를 견뎌내고 지금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을 보면 더 잘해드리고 싶다”면서 “어르신들이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나를 제일 먼저 떠올려주고, 나를 의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당진신문 제공

행복하지 않은 길이 없다

충남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하는 청춘페이지

행복한 꽃길

학교에 가는 날은 쉬는 날

은산면 두메산골에서 팔 남매 중 일곱째로 태어난 나는 어려서 건강이 좋지 못해 국민학교도 다니질 못했다.

결혼 후 시부모님과 남편을 모시고 칠 남매를 키우느라 내 배움은 생각지도 못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가져온 통신문을 못 읽어 준비물을 챙겨주지 못하고 또, 모르는 숙제를 물어볼 때는 호환 마마보다 무서웠다. 농협이나 관공서에 가서 이름을 적으라고 하면 털털 떨면서 적던 일 이제는 옛일이 되었다.

한글학교에 다니면서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많으니 자신감이 생기고 서툴지만 시화도 만들어 상도 받고 새롭게 태어난 것만 같다. 오늘도 나는 학교에 간다.

학교에는 우정이 있고 나눔이 있고 사랑이 있고 감사한 마음으로 공부하다 보면 어느 길이든 행복하지 않은 길이 없다.

학교에는 우정이 있고 나눔이 있고 사랑이 있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다 보면 어느 길이든 행복하지 않은 길이 없네

우리가 가는 길은 꽃길이네
웃음꽃
감사꽃
사랑꽃
행복의 꽃들이 피어난다네

그 길에는 웃음꽃, 감사꽃, 사랑꽃, 행복의 꽃들이 피어나기 때문이다.



박선예 어르신

“아이에게 가족의 울타리가 되어주세요”



가정위탁은

부모의 사망, 학대, 수감 등의 사유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위탁가정의 집에서 아동을 양육하며,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아동복지서비스입니다.



위탁가정을 찾습니다.

가정해체로 인한 사회문제의 피해자는 사회적 약자, 그 중에서도 아이들입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고, 안정적인 집에서 지내고, 충분한 교육을 받으며 뛰어놀아야 할 아이들이 이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눠주는 새로운 가정이 되어주세요.

위탁아동에게는

이 필요합니다.



꿈을 키워줄 어른
마음을 나눌 어른
사랑을 표현하는 어른



튼튼한 가정
행복을 가르쳐줄 가정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가정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는 2003년부터 충청남도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하는 아동복지전문기관입니다.



“헌혈은 나를 더욱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김한정수 갈산고등학교 교사

9년간 백혈병 환우 돕기에 기증된 헌혈증 총 1885매
동아리 출신 절반가량 의료·보건 계열서 일하고 있어

[홍성] “개인적으로 학교를 그만두는 날까지 헌혈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헌혈은 69세까지 가능하니까 헌혈을 더 이상할 수 없는 나이가 될 때까지 계속할 겁니다. 헌혈을 시작하면 더 이상 내 몸은 내 몸이 아니게 됩니다. 담배도 안 피우게 되고 술은 더더욱 안되죠. 결국, 헌혈은 나를 더욱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지난 4일 <홍주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한정수 갈산고등학교 교사(57)는 “사진에 제 얼굴이 안 나와도 상관없지만, 종이에 담긴 이 내용은 인터뷰에 꼭 실려야 해요”라며 그는 몇 번이고 말했다.

이면지 뒷면을 짝 채운 인쇄물에는 ‘생명 잇기’ 운동의 취지가 담겨 있었다. ‘헌혈 참여’ 이유와 ‘사후 장기 조직 기증 서약’에 관한 내용이다. 운동의 취지는 헌혈과 사후 장기 조직 기증 서약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주기로 약속한 소중한 몸이 되기 때문에 자기 몸을 더 아끼게 되고 결국 자신을 더욱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다.

각종 언론 매체에서 알려진 헌혈 천사들과 달

리 김한 교사의 활동은 조금 특별하다. 김한 교사는 지난 2012년 홍성여자고등학교에서 재임 당시 ‘B-love헌혈자원봉사단’을 창단하고 학생들과 함께 헌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생명 잇기 운동을 혼자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 운동이 더 확산돼야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미래의 헌혈 자원인 정기 헌혈자를 양성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지난 2012년 7월부터 정기적인 활동을 시작해서 그를 거쳐 간 학생만 약 160명, 동아리 주관으로 9년간 백혈병 환우 돕기에 기증된 헌혈증만 총 1885매다.

교육계에 몸담은 지 33년째, 베테랑 교사로서 그의 교육 철학은 한결같다. 자신이 술선수범해야 아이들도 따라온다는 것이다. 김한 교사에 따르면 동아리 출신의 약 절반은 학교를 졸업하고 의료·보건 계열에서 일하고 있다고 한다. 그의 교육 철학은 제자들에게 이어져 사회에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데 쓰이고 있다.

김한 교사는 헌혈의 집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10년 동안 아이들을 데리고 다른 지역으



▲백혈병 환우돕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B-love헌혈자원봉사단. ▲‘생명 잇기’ 운동의 취지가 적혀있는 인쇄물을 들고 웃고 있는 김한정수 교사. 헌혈증 보관함▶

로 헌혈을 하러 간 횟수만 약 180회 정도 됩니다. 동아리를 운영하며 가장 걱정됐던 것은 아이들의 안전 문제였습니다. 혹시 사고가 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 아이들이 무서워할 정도로 통제했죠. 아이들의 안전 문제도 그렇고 가까운 곳에 헌혈의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대한적십자 등 여러 기관에 문의했지만, 인구와 경제성 등의 이유로 좌절됐습니다.”

끝으로 김한 교사는 “교육하면 세상은 바뀐다. 교편을 잡은 뒤 이 마음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며 “이 철학 아래 동아리 만들었고, 조금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채혈량 약 75만 4000L, 헌혈증 1885매를 각 1매씩 400mL 기준으로 합한 값이다. 숫자만으로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이 기적은 현재도 갈산고등학교에서 진행 중이다.

이들이 행한 기적은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생명의 줄이었을 테고, 누군가에게는 인생이 바뀌는 새로운 시작이었을 것이다.

가을 하늘처럼 환하고 순박하게 웃던 그의 모습처럼 이 기적이 순수함을 잃지 말고 지속되길 바라본다.

/홍주신문 제공

예당호 천연기념물 ‘수달’ 또 로드킬

전문가들, 안전시설·속도제한 강조
‘1급멸종위기종’ 보호책 수립해야



예당호에서 발견된 천연기념물 제330호 수달

[예산] 예당저수지에서 천연기념물 제330호 ‘수달’ 2마리가 ‘또’ 로드킬을 당했다.

주민 임태규씨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00시 36분께 수문 앞 도로에서 수달 2마리가 차량에 치여 한 마리가 현장에서 죽었다.

다른 한 마리는 신고를 받은 119가 구조해 이날 아침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로 인계했지만, 안타깝게도 척추골절 등 치료가 불가능한 손상을 입어 안락사했다.

전문가들은 출렁다리·모노레일·음악분수·경관조명 등 대규모 관광사업으로 통행량이 많아져 서식지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안전울타리·교통안내표지판·차량속도 제한 등 예방조치를 강조했다.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 ‘1급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달은 족제비과로, 198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다.

몸길이 63~75cm, 몸무게 6~10kg이다. 임신기간 약 70일 전후, 한 번에 2~4마리의 새끼를 낳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야행성이며 위험할 때는 물속에 잠복한다. 좋아하는 먹이는 붕어, 메기, 가물치, 미꾸라지 등이다. 주로 물이 많고 먹이가 풍부한 저수지나 하천변에 서식한다.

‘로드킬(Road Kill)’을 당한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2018년 7~8월에는 응봉 평촌리 평촌삼거리 주변 도로에서 한 달 사이 2마리가 잇따라 차량에 치여 죽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야생생물 보호와 서식환경 보전을 위한 대

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립생태원 관계자는 “제일 확실한 건 안전울타리를 치는 것이다. 차량속도를 늦춰도 예방효과가 있다. 예당호와 비슷하게 호수 주변으로 수달이 다니는 강릉 경포호의 경우, 도로 곳곳에 수달을 보호하기 위한 교통안내표지판과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서행을 유도하는 조치를 했다”고 조언한 뒤, “서식조건 가운데 은신처가 있어야 한다. 관광사업 등으로 이를 훼손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낚시 등 수변활동이 많아져도 자유롭게 활동하는 영역이 준다”고 설명했다.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관계자는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야생동물이 서식지 안에 건너야하는 도로가 있을 때 차량 평균운행속도에 맞춰 적응한다. 안전운전 등 사람에게 안전해야 동물에게도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이 머리를 맞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야생동물 보호와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대내외적으로 황새와 함께 수달이 서식하는 ‘친환경이미지’까지 알리는 1석3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한정보신문 제공

홍성 태권도, 대한민국을 이끈다

WT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권도윤 금, 장준 은 획득

[홍성] 홍성군 출신의 권도윤 선수(20, 한국체육대학)와 장준 선수(22, 한국체육대학)가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열린 2022 세계태권도연맹(WT)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획득하며 홍성 태권도의 위상을 높였다.

광천읍 출신의 권도윤 선수와 홍성읍 출신의 장준 선수는 홍성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이번 대회에 나란히 국가대표에 선발돼 함께 귀중한 메달을 획득하며 우리 대표팀에 힘

을 보탤다.

대회 3일차인 지난 17일 경기를 치른 권 선수는 남자 -68kg급에 출전해 결승전에서 랭킹 1위이자, 지난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영국의 블래들리 스티븐을 라운드스코어 2-0으로 제압해 짝짝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권 선수는 월드스타인 이대훈 선수가 국내 최강자로 군림하는 가운데 좀처럼 국제경기 출전 기회를 잡기 어려웠던 탓에 랭킹 132위에 그쳤으나, 지난해 도쿄올림픽을 끝으로 이대훈 선수가 은퇴하면서 권 선수가 체급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했다.

/홍성군 제공



홍성군 출신의 권도윤 선수(20, 한국체육대학)와 장준 선수(22, 한국체육대학)가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열린 2022 세계태권도연맹(WT)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획득했다.



사서들의 서재



<고르고 고른 말/홍인혜/미디어창비 / 2021>

언어생활자의 마음 속 안착한 말들

옛말에 ‘말 한마디에 천냥 빚도 갚는다’고 했다.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을 넘어선 힘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속담이다. 이 말의 힘과 중요성을 일찍이 깨닫고 말에 공을 들이는 사람이 있다. 바로 홍인혜 작가다. 자신을 말에 기대어 사는 언어생활자라고 표현하는 저자는 일상툰 ‘루나파크’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이끌어 냈던 카피라이터이자 만

화가이다. TV나 유튜브의 영상에서 한번쯤은 들어봤을 ‘즐거움엔 끝이 없다’는 방송사의 슬로건도 저자가 공들여 만든 카피다.

말의 세계가 늘 궁금했던 저자는 작은 태양계처럼 말의 인력이 이끌린 듯 그 주변을 빙글빙글 돌면서 광고를 만들고, 만화 속 말풍선을 채우고, 다양한 곳에서 강연하다가 2018년에는 시인으로 등단했다. 날마

다 말을 닦고 기름칠하다가 마침내 말이 취미이자 특기이고 놀이이자 밥벌이인 언어생활자가 된 것이다.

「고르고 고른 말」은 언어생활자인 저자가 일상과 여행, 사람과 일 사이에서 주고받은 언어 중 특별히 애정한 말들을 엄선하여 풀어낸 에세이다.

저자는 정말 값진 말은 상처 입은 나를 따뜻한 품으로 잡아당기는

엄마의 한마디, 할아버지가 보낸 문자 메시지 한 통, 나를 잘 아는 친구와의 평범한 대화 속에 있다고 말한다. 그 말들이 켜켜이 쌓여 나를 지키고, 지치고 힘들 때면 언제고 꼭 잡아주겠다는 듯이 내 안에 살아 숨 쉬며 어디서든 꺼내어 볼 수 있도록 살뜰히 나를 돌보게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내가 받은 애정과 위로를 남에게 그대로 돌려주고 싶게 만든다. 이것이 진정한 말의 힘이 아닐까.

/충남도서관 정소이 사서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주요활동

지역균형발전 정책 및 투명한 예산 집행 강조

기획경제위원회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명숙)는 17일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김명숙 위원장(정양)은 “만족도가 86.6%에 달했던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 사업 예산(2022년 기준 58억원)이 일몰된 것은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국비 미지원 사유로 2023년도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일몰하더라도 지역 상권을 위해 충남도가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기형 부위원장(논산)은 “세월호 사고, 이태원 참사 등 대형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인명구조 인력을 배치해야 할 뿐 아니라 드론을 통해 인명구조를 적시에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제안했다.

김석곤 위원(금산)은 기획조정실이 지도·감독하고 있는 충남도립대 운영위원회 개최와 관련 “4년간 대학운영위원회가 미개최되고 기획조정실장이 운영위원회 위원임에도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종화 위원(홍성)은 “최근 3년간 지방보조금 미반납·미정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지방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월을 최소화

화하고 미반납·미정산 시군에 대해 강력한 패널티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중혁 위원(천안)은 “도립대학의 예산 집행 잔액이 4년 연속 26억원 이상이 된다는 것은 예산운영상 큰 문제다.

또 도립대학교 재정위원회의 외부 위원인 교육법무담당관과 예산담당관의 참석현황이 매우 저조하다”며 적극적인 참석과 잘못된 부분의 시정조치를 촉구했다.

이지운 위원은 기획조정실이 관리·감독하는 인재육성재단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과 관련 “초과근무수당이 주1회 12시간 이상으로 지급됐다”고 질책하며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하고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17일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체감도 높은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마련 요구

행정문화위원회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옥수)는 14일 청년공동체지원국, 감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옥수 위원장(서산)은 “일부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 비율은 0%대로 매우 저조하다”며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제품 우선 구매를 독려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상근 부위원장(홍성)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관련해 “금리가 폭등함에 따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자지원과 관련한 예산 확보와 금융사와의 협의를 통해

청년들의 부담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장현 위원(아산)은 청년의 날 기념식 행사와 관련 “도와 시군이 별개로 진행함에 따라 행사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며 “권역별로 진행되는 방안을 검토하고 청년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달라”고 제안했다.

오인환 위원(논산)은 “도민참여예산제 참여 범위를 예산편성 및 집행단계에 국한하지 않고 결산 단계로 확대하여 주민 주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기영 위원(공주)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13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체감도는 낮다”며 “실효성 있게 지원하도록 꼼꼼히 살펴달라”고 촉구했다.

박정수 위원(천안)은 “마을기업, 사회적 경제기업, 협동조합의 지원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명칭과 기준을 명확히 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현숙 위원은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충남형 셰어하우스 운영 도입과 관련 “청년들은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곳에서 자립을 원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광희 위원(보령)은 청년 지원 사업에 대해 “도비를 확대해서라도 청년들의 필요에 맞춘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주장했다.

공공의료원 환경 및 환자 만족도 개선 촉구

복지환경위원회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응규)는 15일 서산의료원과 홍성의료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응규 위원장(아산)은 “병원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서산의료원 응급실 운영 관련 민원사항을 지적하며 “환자중심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민규 부위원장(아산)은 “항생제 투약률이나 처방건당 약품목수, 투약일당 약품비 등 불필요한 처방이 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방한일 위원(예산)은 “서산의료원의 경우 취약계층 사업이 ▲2020년 1580만원 ▲2021년 1000만원으로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양경모 위원(천안)은 “서산의료원의 환자만

족도가 도내 다른 의료원에 비교해 가장 낮은 편”이라며 개선 방안 강구를 주문했다.

김선테 위원(천안)은 홍성의료원 손실보상금 처리와 관련하여 “규정도 불구하고 직원 위로금 차원에서 성과금으로 지급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연희 위원(서산)은 “의료원의 공통 문제점인 의료진 총원에 대해 공공임상교수제나 시니어 의사 인력 활용 등 다양한 방안으로 접근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철수 위원(당진)은 “의료원 환자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인건비는 크게 상승하고 있다”며 “의료진 인건비 연봉상한액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병인 위원(천안)은 “서산의료원과 홍성의료원 모두 장애인 고용비율의 경우 의무고용비율인 3.4%도 못 미치고 있다”며 “직원의 다양성 및 기회평등을 위해 고용취약계층 근무 분야를 개발해 달라”고 당부했다.

철저한 연구 및 조사로 어민 피해 최소화 당부

농수산해양위원회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정광섭)는 지난 15일 오후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광섭 위원장(태안)은 “수산자원연구소는 충남의 기후와 환경에 맞는 어족자원에 관한 연구 활동을 더 많이 해야 한다”며 “해상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바지락이 폐사한다. 연구를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오인철 부위원장(천안)은 “내년 준공 예정인 수산자원종자연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등 배치 계획에 따른 예산을 미리 확보해 달라”고 말했다. 또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와 관련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복만 위원(금산)은 “한다리새우 연구 실패는 사전 기본 지식 습득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민수 위원은 “귀어학교 운영을 통해 약 20% 정도의 사람들이 정착한다. 정주 여건 개선 마련에 힘써 달라”고 밝혔다.

신영호 위원(서천)은 “긴 가뭄으로 김 양식장들이 황백화현상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로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안영 위원(아산)은 “매년 치어를 방류만 하고 생존율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치어 방류에 따른 효과성 연구에 힘써 달라”고 제안했다.

유성재 위원(천안)은 “도내 해역의 변화에 맞춰 어종 변화와 미래 변화하는 어종 연구가 필요하다”며 “관련 대학과의 연계 방법도 고민해 달라”고 요구했다.

주진하 위원(예산)은 “건강과 웰빙 등으로 인해 수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험시설 철저한 훈련 및 인력 충원 주문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기서)는 논산소방서, 금산소방서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의 발빠른 대처를 주문했다.

김기서 위원장(부여)은 “관내 공장시설 중 재난 및 사고 발생률이 높은 시설들을 위주로 교육과 훈련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히 “재난 발생 시 많은 시민들이 정확한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완식 부위원장(당진)은 “화재 발생 시 진압 과정에서 굴착기 이용은 장비 사용의 목적상 맞지 않고 2차 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며 “권역별로 신속한 현대화 장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철기 위원(아산)은 “신속한 출동을 위해 화재 진압 장비 점검 및 정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또한 “논산소방서 홈페이지를 현행화

해 시민과의 재난·안전 소통의 창구로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광철 위원(공주)은 “소방서 신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중 인력과 장비가 충분히 위치할 만큼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도훈 위원(천안)은 “이동 안전체험관 운영 시 홍보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유아·아동 교육에 매우 유용한 차량인 만큼 활용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신한철 위원(천안)은 “논산소방서 현황을 보면 1인당 담당인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아 적절한 인력 조정 및 분배가 필요하다”며 “노후 소방차는 신속히 교체하여 정상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피력했다.

이용국 위원(서산)은 “소방서 민원 문의 등 소방과 시민의 소통의 부재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하며 좀 더 적극적인 민원 관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교원 성비위·저조한 사학 법정부담금 납부 질타

교육위원회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8일 충남교육청을 대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신순옥 위원은 교원성비위에 대해 교육감의 공개 사과와 성폭력 실태조사를 통한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신 위원은 “엄벌과 처벌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은 “천안 공무원이 1인당 담당해야 할 점검 개소는 562개, 아산·서산·당진의 경우도 공무원 1인당 300여개에 달한다.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정식 위원(아산)은 “일선학교의 교가에 ‘우리 학교 선생님들 너무 너무 착하시다’ 등의 내용이 있다”며 “교가는 학교의 교육정신, 이상 등을 담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윤희선 위원(태안)은 무선이어폰 소지로 시험을 볼 수 없게 된 학부모의 민원을 언급하며

“학교성적관리 규정은 사후 처벌이 아니라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미옥 위원은 “충남교육청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음에도, 학교 현장에서 일회용품이 줄지 않고 있다”며 “세심한 정책을 펼쳐 달라”고 주문했다.

편삼범 위원장(보령)은 “김지철 교육감이 후보시절, 충남교육연대와의 정책협약서 체결 시 감사직급 등 상시지속업무 무기계약직 전환을 보장했다. 속히 이행해달라”고 말했다.

전익현 위원(서천)은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을 학생들에게 사용할 교육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적극적인 관리 감독에 나서야한다”고 주문했다.

홍성현 위원(천안)은 “천안 일부지역 통학구역 조정과 관련 지속적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소통하는 교육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역대 의장 초청 간담회 개최

제12대 의회 출범 후 의정활동 보고
의·도정 발전 및 현안 해결 고견 청취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16일 도의회에서 역대 의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지난 7월 제12대 의회가 출범하고 나서 처음 갖는 이번 간담회는 새로운 미래로의 도약을 위한 역대 의장들의 고견을 듣고, 지역 현안 해결과 의정 및 도정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조길연 의장을 비롯해 이복구(7대 전반기)·박동윤(7대 후반기)·김문규(8대 전반기)·강태봉(8대 후반기)·정순평(8대 후반기)·유병기(9대 전반기)·이준우(9대 후반기)·김기영(10대 전반기)·윤석우(10대 후반기)·유익환(10

대 후반기)·유병국(11대 전반기)·김명선(11대 후반기) 역대 의장이 참석했다.
역대 의장들은 “‘도민중심 행동하는 의회’ 12대 의회 출범을 축하하며 앞으로 현장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수시로 듣고 정책에 반영하여 민생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주길 바란다”며 “의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방한일 의원, 전국 운영협 수석부회장 선출

“더 높은 수준의 지방자치 구현” 다짐



충청남도의회 방한일 의회운영위원장(예산1)이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2차 정기회에서 제10대 전반기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됐다. <사진>
17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이번 협의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해 제10대 전반기 임원을 선출했다.
그 결과 방한일 위원장이 수석부회장을 맡기로 했다.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된 방 위원장은 “그간의 지방 의정활동과 협의회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과 함께 더 높은 수준의 지방자치 구현과 지방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위원 간 의견통합과 활발한 협의회 활동을 이끌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기회에서는 방한일 수석부회장과 함께 수도권·충청권·호남제주권·영남권 등 권역별 부회장 4명과 사무총장 1명, 정책위원장 1명도 선출했다.

전국 최초 독립운동가 기리는 캘리전

다음아트홀서 12월 2일까지
작품 36점 전시...업적 기려



충남도의회가 2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충남의 독립운동가 캘리그래피 공모전’ 수상작품 36점을 전시한다. <사진>
‘제1회 충남의 독립운동가 캘리그래피 공모전’은 전국 최초의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캘리그래피 공모전으로, 충남캘리그래피협회가 주관하고 충청남도독립운동가연합회가 후원했다. 김향숙 작가의 ‘옥과 이종일 어록’이 대상을 받았고, 최우수상은 흥현미 작가의 ‘님의 침묵(한용운)’, 우수상은 이준태 작가의 ‘단장지통(김좌진)’과 박유림 작가의 ‘유관순 어록’이 선정되었다.

최윤희 충남캘리그래피협회장은 “이번 전시는 충남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를 재조명하는 기회로 그분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개최했다”며 “캘리그래피를 통해 예술혼과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이 만나는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길연 의장(부여2)은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정신을 배우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북혁신도시 우수사례 벤치마킹한다

친환경에너지 특화 정책 등 공유



충남도의회 정책위원회(위원장 이완식)는 타 시·도 유사지역의 우수사례 접목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충북혁신도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사진>
정책위원회 위원들은 21일 충북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가스안전체험관(12월 15일 시범운영 예정) 사업현장을 방문해 사업현황을 청취했다.
또 충북에너지산업융합원, 충북테크노파크 오 픈랩 차세대융합기술센터, 태양광 아이디어 시제품 사업과 지원센터를 방문해 친환경 에너지 정책 등에 특화해 ‘녹색 치유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사업현황을 청취했다.
또한 미래 농업형 복합문화 공간인 진천 루

트스퀘어(Root Square)를 방문해 농촌과 농업, 문화가 연결되는 미래 농촌사회의 대안적 공간에 대해 논의했다.
이완식 위원장(당진2)은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이 뒤늦게 이뤄져 아직 수도권 공공기관이 하나도 내려오지 않은 상태이지만, 충남도와 함께 우리 충남도의회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에게 듣는다



⑥교육위원회 - 구형서 부위원장

천안·아산 연구&개발 직접 지구 활성화 중점
소통하는 젊은 의원으로 도민 행복 앞장설 것

“과밀학급으로 인한 학생 학습권 침해 해결 강조”

제12대 충남도의회 출범 6 달여가 지나는데 소감은?
“교육위 부위원장으로 4개월여 활동했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머리카락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도민을 사랑하고 아끼는 감정의 정치를 배울 수 있었다. 즐겁고 큰 보람을 느낀다. 교육위 부위원장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책을 논의하고 열정을 쏟아 나가겠다. 구형서 만의 방향성을 가지고 도민과 소통해 나가겠다”

시급한 지역 현안과 그 해결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과밀학급(한 개 학년 이상 학급당 학생 수가 28

명을 초과)으로 인한 도내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 해결이 우선 돼야 한다. 현재 충남 과밀학급 비율은 전국에서 3번째로 높다. 학교군 조정 시에는 통학 거리를 직선거리로 산출하다 보니 교통상황, 이동시간에 대한 고려도 되고 있지 않다. 획일적 학군 지정보다는 유연한 한국 조정의 기준이 이뤄져야 한다.”

제12대 의회에서 꼭 이루고 싶은 것은?
“현재 조성 중인 천안·아산 연구&개발(R&D) 직접 지구 성공을 위한 활성화를 시켜가고 싶다. 또 한시적인 도의원 재임 기간으로 인해 도민들에게 유용한 혜택이 연속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전대 조례부터 사장되는 사업들이 없도록 두루두루 살펴 가겠다. 더불어 40대 젊은 후보로 20·30세대의 진로, 주거, 육아, 교육에 대한 걱정을 주민과 호흡하며 이해하고 해결해 가도록 노력하겠다.”

도민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구형서가 생각하는 정치는 도민들이 서 있는 곳의 돌부리를 치워주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여긴다.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언제든 소통할 것이며, 교육 관련 아니더라도 각종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는 도민의 일꾼으로 거듭나겠다.”

“사각지대 없는 지역 의료체계 구축할 것”

제12대 충남도의회 출범 6 달여가 지나는데 소감은?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 부위원장으로 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고, 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의회 운영에 힘쓰고 있다. 특히 48명의 의원이 더 효율적이고 편안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가겠다. 새로운 변화 속에 출범한 제12대 의회가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도의회가 더 활발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 지켜봐 주시고 지지해주길 바란다.”

가장 시급한 지역 현안과 그 해결 방법은?

“행정의 정책과 현장의 요구가 서로 너무 다르다. 실질적인 현장에서 유용한 정책 접목을 위해 앞장서겠다. 먼저 이번 행감에서 민간119를 전반적으로 파악하면서, 그들의 처우 개선에 힘써야겠다고 다짐했다. 실질적인 현장 상황과 접목한 정책 마련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

제12대 의회에서 꼭 이루고 싶은 것은?
“상임위 활동에 힘쓰는 가운데, 도민의 행복과 권의 증진을 위해 앞장서겠다. 특히 당진 공공의료원 설립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충남 북부거점지역인 당진에 공공의료원을 설립함으로써 사각지대 없는 지역 의료체계를 구축, 도민 모두가

동등한 건강권을 보장받도록 뒷받침하겠다. 단순히 의료원만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경우에는 의사, 간호사 수급 관계가 더 어렵다. 이에 각 의료원 또는 각 대학을 활성화해서 졸업 후 도내에서 일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민들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향상해 나가겠다.”

도민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항상 낮은 자세로 도의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도민에게 믿음을 주는 도의원으로 자주 현장을 방문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의회는 언제든 열려 있으니, 더 활발한 소통을 부탁드립니다.”



⑦의회운영위원회 - 이철수 부위원장

현장에서 유용한 정책 접목 중점
현장 방문 통한 도민과의 소통·신뢰

육군사관학교 충남이전!

육사의 두 번째 심장이 뛰는다

**육사 충남이전,
이제는 과감히 결단할 때입니다**

국방시너지를 극대화 시킬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찾아
세계 1등 명문사관학교로 업그레이드 되어야합니다

**육사 충남이전,
첨단국방 백년대계의 시작입니다**

‘육사의 충남시대’가 곧 시작될거라는 강한 믿음으로
220만 충남도민 모두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육사와 충남이 대한민국 미래국방의 중심으로
우뚝서는 그날까지

**육군사관학교충남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

